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Kiturami 복지재단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주민의 목소리와 공명하는 실천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안내 첫 페이지에 변함없이 등장하는 사회복지관의 정의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으로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감함과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무수한 고민 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것이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접하게 된 코로나라는 낯선 단어는 잠시 스쳐가는, 우리가 조금 애쓰고 나면 사라질 작은 과제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분화되는 단계별 거리두기를, 각자 개인의 삶에서는 지켜갈 수 있었으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켜가기란 여러 의문과 고민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협력하고 도모하는 사회복지현장도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언택트(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이라는 온택트(untact)라는 방식도 생겨났습니다.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약한 부분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도 가장 약한 목소리,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COVID-19 이후에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은 계속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두 해에 걸쳐 정리한 2021 복지관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는 낯설고 크나큰 외부환경의 변화만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주민의 목소리와 공명하고자 하는 실천가들의 열망과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내부학습을 통한 설문지 개발부터 조사결과 분석 및 합의 도출까지의 전 과정이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실천가들의 힘으로 진행되었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동행에 늘 기꺼이 참여해 주시는 고이경 교수님의 연구자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한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한데 섞여 어우러져’의 뜻을 가진 <함께>라는 단어는 종종 위대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에도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본 연구과정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복지의 실천을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할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작은 연구가 또 다른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와 공명하는 실천들과 연결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10월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김성미

발행인

김성미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연구원

이충효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최민정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 팀장

임하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대리

최지호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

연구자문

고이경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CONTENTS

Ⅰ. 서론

1. 조사 실시 배경 11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복지관 운영 변화 12
3. 조사의 개요 14

Ⅱ. 욕구조사 결과분석

1. 일반적 특성 19
2. 코로나-19 이후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분석 29
   1)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 29
   2)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 36
   3)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의 경험정도 43
   4)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정도 50
   5)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정도 57
3.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 62
   1) 정보획득 영역 62
   2) 경제 영역 65
   3) 고용 영역 67
4.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에 대한 분석 73

Ⅲ. 욕구조사 교차분석

1. 정보 영역 77
2. 경제 영역 83
3. 고용 영역 95
4. 사회적 관계 영역 103

Ⅳ. 집단간 유의미한 분석

1. 주민-소상공인 집단간 분석 113
2. 20~50대-60대 이상 집단간 분석 116
3. 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간 분석 119
4. 정규직-일용직 집단간 분석 123
5. 보호제도권-정부 보호 해당 없는 집단간 분석 126
6. 1인 가구-2인 이상 가구 집단간 분석 129
7. 근로소득 발생-미발생 집단간 분석 130
8. 2~3인 가구-4인 이상 가구 집단간 분석 131
9. 종교있음-없음 집단간 분석 132
10.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집단간 분석 133
11.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집단간 분석 134
12. 정기적 근로활동-비정기적 근로활동-무직 집단간 분석 139
13. 1인 가구-2~5인 가구-4~5인 가구 집단간 분석 142
14.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무교 집단간 분석 145

Ⅴ. 신뢰도 검증

Ⅵ. 결론 및 제언

※부록

1.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159
2. 첨부자료: 욕구조사 설문지 171

표 목차

〈표-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복지관 운영 12
〈표-2〉 조사개요 14
〈표-3〉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29
〈표-4〉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주민 빈도분석 32
〈표-5〉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소상공인 빈도분석 34
〈표-6〉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36
〈표-7〉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주민 빈도분석 39
〈표-8〉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소상공인 빈도분석 41
〈표-9〉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43
〈표-10〉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주민 빈도분석 46
〈표-11〉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소상공인 빈도분석 48
〈표-12〉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50
〈표-13〉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주민 빈도분석 53
〈표-14〉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소상공인 빈도분석 55
〈표-15〉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57
〈표-16〉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주민 빈도분석 59
〈표-17〉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소상공인 빈도분석 61
〈표-18〉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73
〈표-19〉 교차분석-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77
〈표-20〉 교차분석-연령대 별 디지털 기기 활용 기능 79
〈표-21〉 교차분석-연령대 별 코로나19 정보를 접하는 매체 81
〈표-22〉 교차분석-가구원수 별 지출 증가 항목 83
〈표-23〉 교차분석-가구원수 별 지출 감소 항목 85
〈표-24〉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지출 증가 항목 87
〈표-25〉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지출 감소 항목 89
〈표-26〉 교차분석-주소득자의 직업 별 지출 증가 항목 91
〈표-27〉 교차분석-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93
〈표-28〉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직업 95
〈표-29〉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고용형태 변화 97
〈표-30〉 교차분석-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99
〈표-31〉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소득변화 101
〈표-32〉 교차분석-성별 가족과의 시간 변화 103
〈표-33〉 교차분석-성별 가족 간 갈등 변화 104
〈표-34〉 교차분석-성별 이웃과의 시간 변화 105
〈표-35〉 교차분석-성별 이웃 간 갈등 변화 106
〈표-36〉 교차분석-가구원수 별 가족과의 시간 변화 107
〈표-37〉 교차분석-가구원수 별 가족 간 갈등 변화 108
〈표-38〉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이웃과의 시간 변화 109
〈표-39〉 교차분석-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110

〈표-40〉 평균분석-주민/소상공인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113
〈표-41〉 평균분석-주민/소상공인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15
〈표-42〉 평균분석-20~59세/60세 이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116
〈표-43〉 평균분석-20~59세/60세 이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17
〈표-44〉 평균분석-20~59세/60세 이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 118
〈표-45〉 평균분석-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119
〈표-46〉 평균분석-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20
〈표-47〉 평균분석-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21
〈표-48〉 평균분석-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 122
〈표-49〉 평균분석-정규직/일용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123
〈표-50〉 평균분석-정규직/일용직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24
〈표-51〉 평균분석-정규직/일용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25
〈표-52〉 평균분석-보호제도권/정부 보호 해당 없는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126
〈표-53〉 평균분석-보호제도권/정부 보호 해당 없는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27
〈표-54〉 평균분석-보호제도권/정부 보호 해당 없는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 128
〈표-55〉 평균분석-1인 가구/2인 이상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29
〈표-56〉 평균분석-근로소득 발생/근로소득 미발생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30
〈표-57〉 평균분석-2~3인 가구/4인 이상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31
〈표-58〉 평균분석-종교 있음/종교 없음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32
〈표-59〉 평균분석-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33
〈표-60〉 평균분석-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134
〈표-61〉 평균분석-아동/청년/중장년/노인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36
〈표-62〉 평균분석-아동/청년/중장년/노인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37
〈표-63〉 평균분석-정기적 근로활동/비정기적 근로활동/무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139
〈표-64〉 평균분석-정기적 근로활동/비정기적 근로활동/무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41
〈표-65〉 평균분석-1인 가구/2~3인 가구/4~5인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142
〈표-66〉 평균분석-1인 가구/2~3인 가구/4~5인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43
〈표-67〉 평균분석-1인 가구/2~3인 가구/4~5인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44
〈표-68〉 평균분석-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무교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45
〈표-69〉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측정 문항 149
〈표-70〉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측정 문항 149
〈표-71〉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의 경험 정도 측정 문항 149
〈표-72〉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측정 문항 150
〈표-73〉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 측정 문항 150
〈표-74〉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과 관련된 문항 150
〈표-75〉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159
〈표-76〉 문항 간 상관관계 -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163
〈표-77〉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신체·심리적 변화 정도 165
〈표-78〉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167
〈표-79〉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 169
〈표-80〉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 170

그림 목차

〈그림-1〉 설계 및 조사 흐름도 15
〈그림-2〉 인구학적 분석결과-조사대상 19
〈그림-3〉 인구학적 분석결과-성별 20
〈그림-4〉 인구학적 분석결과-연령대 21
〈그림-5〉 인구학적 분석결과-직업 22
〈그림-6〉 인구학적 분석결과-보호제도 23
〈그림-7〉 인구학적 분석결과-가구원수 24
〈그림-8〉 인구학적 분석결과-가족구성원 25
〈그림-9〉 인구학적 분석결과-종교 26
〈그림-10〉 인구학적 분석결과-코로나-19 검사 여부 27
〈그림-11〉 인구학적 분석결과-코로나-19 검사 이유 28
〈그림-12〉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30
〈그림-13〉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37
〈그림-14〉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44
〈그림-15〉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51
〈그림-16〉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57
〈그림-17〉 정보획득-소지한 디지털 기기 분석결과 62
〈그림-18〉 정보획득-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하는 기능 분석결과 63
〈그림-19〉 정보획득-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매체 분석결과 64
〈그림-20〉 경제-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지출금액 분석결과 65
〈그림-21〉 경제-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지출금액 분석결과 66
〈그림-22〉 고용-가정 내 주소득자의 직업 분석결과 67
〈그림-23〉 고용-주소득자의 고용(소득)형태의 변화 68
〈그림-24〉 고용-주소득자의 근무형태 변화 69
〈그림-25〉 고용-소득의 변화 70
〈그림-26〉 가족 간 사회적 관계 분석결과 71
〈그림-27〉 가족 간 사회적 관계 분석결과 72

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본문- Ⅰ.

서론

Ⅰ. 서론

1. 조사 실시 배경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COVID-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 를 마주하였다. 만남보다는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생활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사회로부 터의 통제라는 낯선 경험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서도 유사한 경험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복지관 휴관지침이 반복적으로 시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각 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또한 불규칙하게 진행되는 예측불가의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복지관을 이 용하거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또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은 주민들의 일상을 가로막고 그 불편 은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혼란과 고민을 안은 채 복지관을 운영하던 중 COVID-19로 인 해 지역주민들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마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스 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 일상생활 및 심리적•신체적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 고자 했다. 또한 COVID-19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고용, 사회적 관계 측면 등 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지역 상점들 의 소상공인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지역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을 복지관의 후원자로 규정했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으로 범주화하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사회복 지관의 사업의 범위를 소상공인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상상에서 인식조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인식조사의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말하는 언택트(Untact)의 실천이라는 추상적 방법론이 아닌, 위드 코로나(With-Corona)의 세상에서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들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주민중심 실천의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복지관 운영 변화

<표-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복지관 운영

<table>
<tr><th colspan="2">기간
(일자)</th><th>거리두기
단계</th><th>시군구
조치(권고)사항</th><th>복지관 운영
(교육문화사업 운영)</th><th>복지관 운영
(무료급식사업)</th><th>비고</th></tr>
<tr><td rowspan="6">2020</td><td>1월</td><td rowspan="4">-</td><td>특이사항 없음</td><td>특이사항 없음</td><td>특이사항 없음</td><td>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td></tr>
<tr><td>2월
1주
~
2주</td><td>무료급식 대체식
제공
손소독제
배부(강서구청)
무상소독지원
(강서구청)</td><td>운영 중지(휴강)</td><td>운영중지/ 대체식
(레토르트, 조리포장)</td><td>-</td></tr>
<tr><td>2월
3주
~
4주</td><td>클린존 추진계획
시행(서울시)
사회복지관 휴관
요청</td><td>강사비 지급 비율
조정
(납부된 수강료의
100% 강사비로 지원)</td><td>운영중지/ 대체식
(조리포장)</td><td>-</td></tr>
<tr><td rowspan="5">3월
~
7월</td><td rowspan="5">생활속
거리두기</td><td rowspan="5">방역&방역물품비
지원(서울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업무지원 협조 요청</td><td>3월-강사 간담회를
통한 강사 의견 수렴
진행</td><td>2월 24일~7월 19일
운영중지/ 대체식
(조리포장)</td><td rowspan="5">-</td></tr>
<tr><td>5월 초-운영 재개
관련 수강생 의견
조사, 6/1부터
운영재개 결정</td><td rowspan="4">7월 20일~8월 17일
정상운영</td></tr>
<tr><td>5월 말-인근
지역(교회, 어린이집,
쿠팡물류)에서 확진자
발생하여, 운영 재개
잠정 연기</td></tr>
<tr><td>6월 15일
정상 운영</td></tr>
<tr><td>6월-강사비 지급
비율 조정
(납부된 수강료의
70% 강사비로 지원)</td></tr>
</table>

기간 (일자)		거리두기 단계	시군구 조치(권고)사항	복지관 운영 (교육문화사업 운영)	복지관 운영 (무료급식사업)	비고
	8월 ~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야외무더위쉼터 운영 요청(강서구) 희망일자리인력지원	8월 18일~9월 20일 운영 중지(휴강)	8월 18일~9월 20일 운영중지/ 대체식 (레토르트)	-
				9월 초-운영 재개 관련 수강생 의견 조사(구글 설문)	9/21~10/18 운영중지/대체식(조리포장)	
				9월 21일 운영 재개 (초등학교 전면 원격수업 종료 반영)		
	10월 ~ 11월 2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정상 운영	10월 19일~11월 23일 정상 운영	-
	11월 3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
	11월 4주 ~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복지관 휴관 요청 코로나 선별검사 요청	11월 26일~12월 31일 운영 중지(휴강)	11월 24일~11월 26일 운영중지/대체식 (조리포장)	2020년 12월 2주 ~2021년 1월 4주 매일 어르신 안부연락 및 근황확인
					11월 27일~12월 31일 운영중지/ 대체식 (레토르트) 주 1회 운영	
2021	1월 ~ 3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초-운영 재개 및 온라인 수업 관련 수강생 의견 조사(구글 설문) 진행	1월 1일~2월 3일 운영중지/ 대체식 (레토르트)	
	4월 ~ 6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용정원 50% 이용	3월 2일 운영 재개	2월 3일 ~7월 11일 운영중지/대체식 (조리포장)	-
	7월 ~ 현재	(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휴관요청	7월 12일~ 현재 운영 중지(휴강)	7월 12일~ 현재 운영중지/대체식 (조리포장)	

※ 사례관리 및 긴급돌봄, 소규모 프로그램 등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준하여 정상운영 되었으며, 교육문화사업, 무료급식사업의 대규모 집단 프로그램 운영변화만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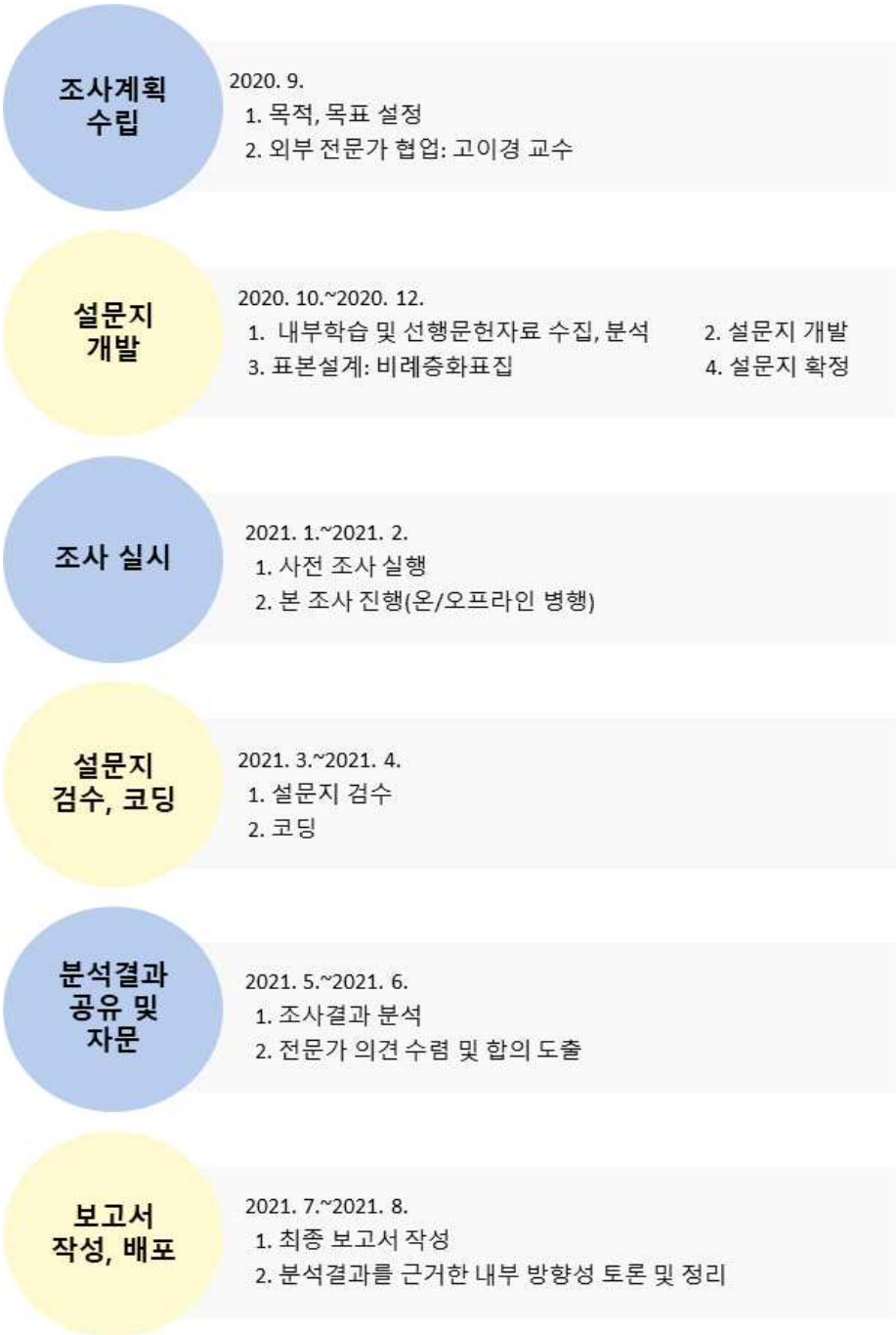
3.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용자와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양적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실제 조사 대상은 지역주민 194명, 소상공인 50명으로 총 244명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2> 조사개요

<table>
<tr><td>조사대상</td><td colspan="2">■ 양적조사 - 총 244명
- 복지관 이용주민 194명
- 지역사회 소상공인 50명</td></tr>
<tr><td>조사 특징</td><td colspan="2">- 전문가 협업: 고이경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외래교수)
- 내부 워크숍: 조사설계 및 설문지 개발
- 조사대상의 다양화: 주민 / 소상공인</td></tr>
<tr><td>조사기간</td><td colspan="2">2021년 1월~2월 (2개월)</td></tr>
<tr><td>조사방법</td><td colspan="2">■ 양적조사
- 주민: 1:1 면접을 통한 직접설문조사 및 온라인 구글설문지
- 소상공인: 1:1 개별 설명 후 수거 조사</td></tr>
<tr><td rowspan="4">주요조사내용</td><td>신체 · 심리적 건강
(45문항)</td><td>스트레스 경험정도(12문항), 스트레스 대처방법(10문항), 심리 · 정서적 변화정도(9문항), 식생활 변화(9문항), 신체활동 변화(5문항)</td></tr>
<tr><td>일상생활
(12문항)</td><td>정보획득(3문항), 경제(2문항), 고용(3문항), 사회적 관계(4문항)</td></tr>
<tr><td>복지관 이용
(6문항)</td><td>복지관 이용 및 방역(6문항)</td></tr>
<tr><td>일반적 사항
(8문항)</td><td>성별, 연령, 직업, 보호제도, 가구원 수, 거주하는 사람, 종교, 코로나 검사여부</td></tr>
<tr><td>분석방법</td><td colspan="2">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분석(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신뢰도 검정 등 (SPSS 25 통계프로그램을 활용)</td></tr>
</table>

<그림-1> 설계 및 조사 흐름도



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본문-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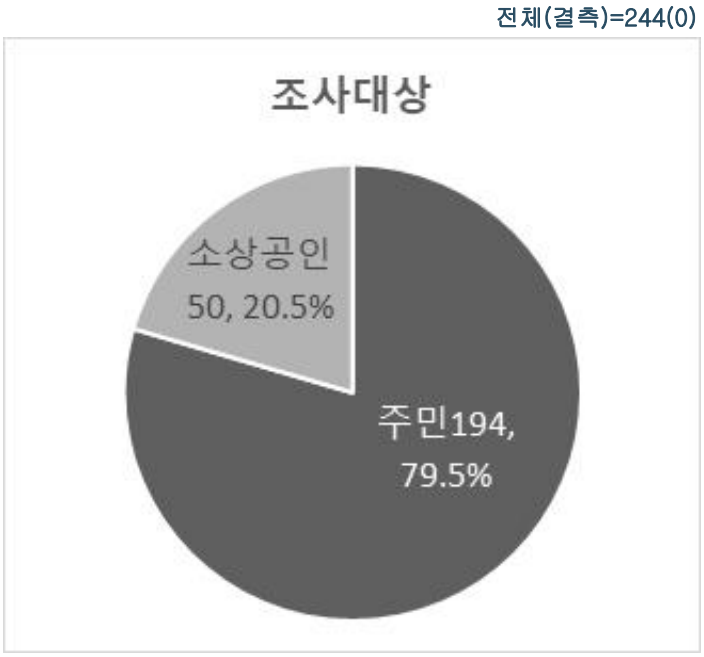
욕구조사 결과분석

Ⅱ. 욕구조사 결과분석

1. 일반적 특성

1)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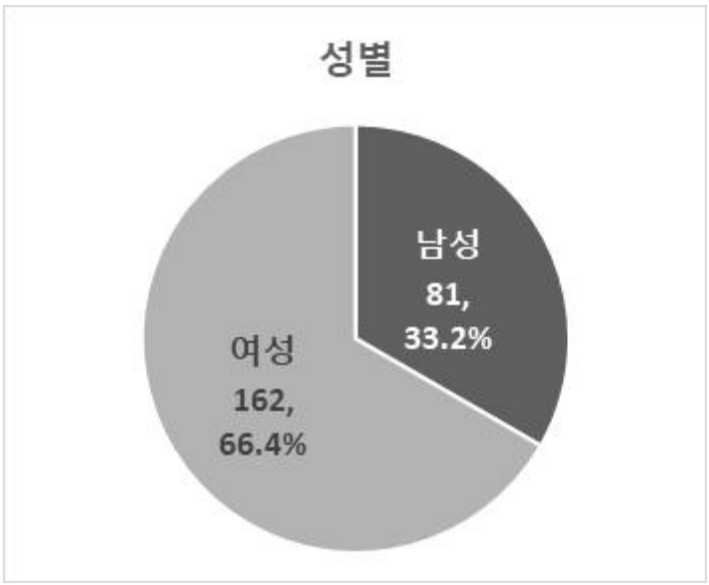
<그림-2> 인구학적 분석결과-조사대상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욕구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복지관 인근에 있는 상점의 소상공인이다. 주민집단 79.5%(194명), 소상공인 20.5%(50명)이 욕구조사에 참여하였다.

2) 성별

<그림-3> 인구학적 분석결과-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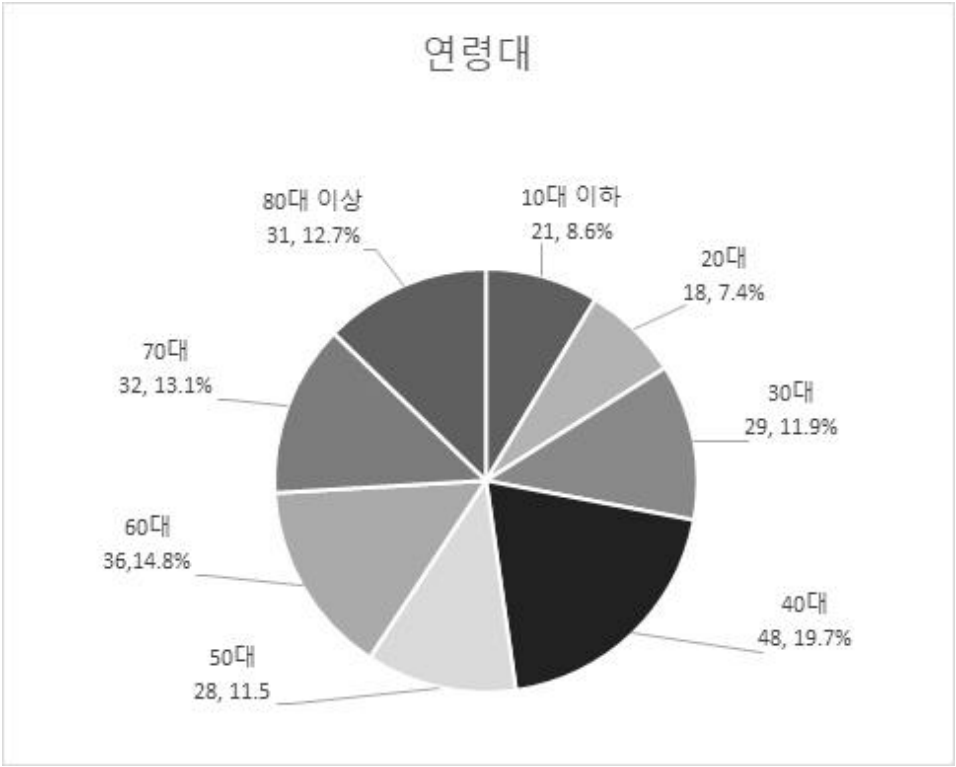


욕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은 33.2%(81명), 여성은 66.4%(162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3) 연령대

<그림-4> 인구학적 분석결과-연령대

전체(결측)=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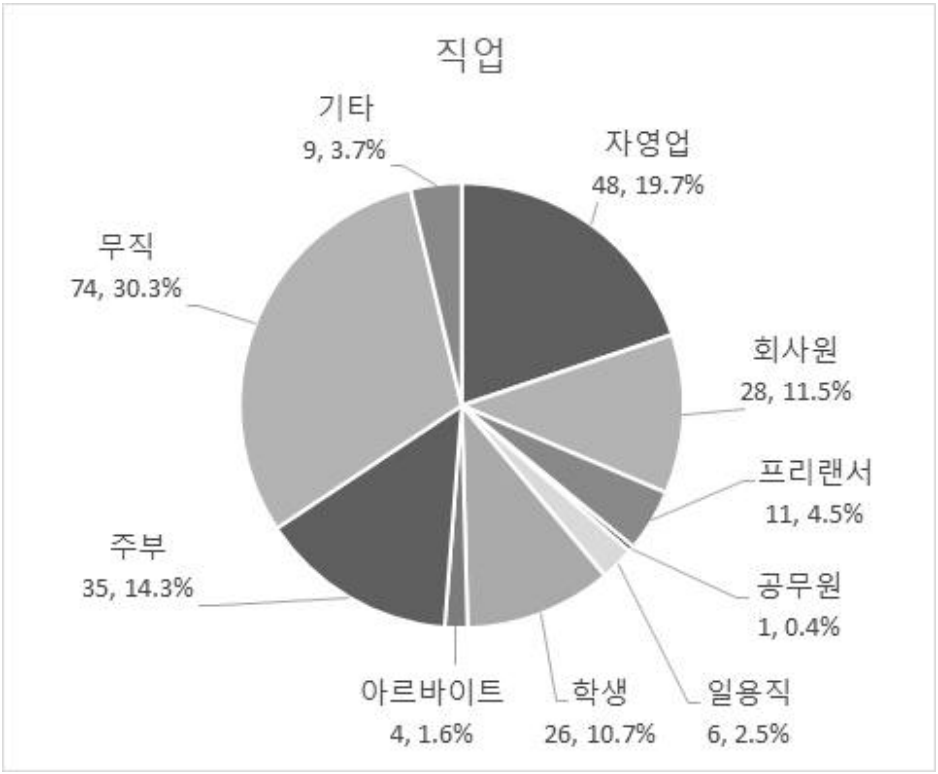


욕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연령'은 노년층인 60대 이상이 40.6%(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년층인 4-50대가 31.2%(76명), 청년인 2-30대가 19.3%(47명), 아동청소년인 10대가 8.6%(21명)으로 나타났다.

4) 직업

<그림-5> 인구학적 분석결과-직업

전체(결측)=2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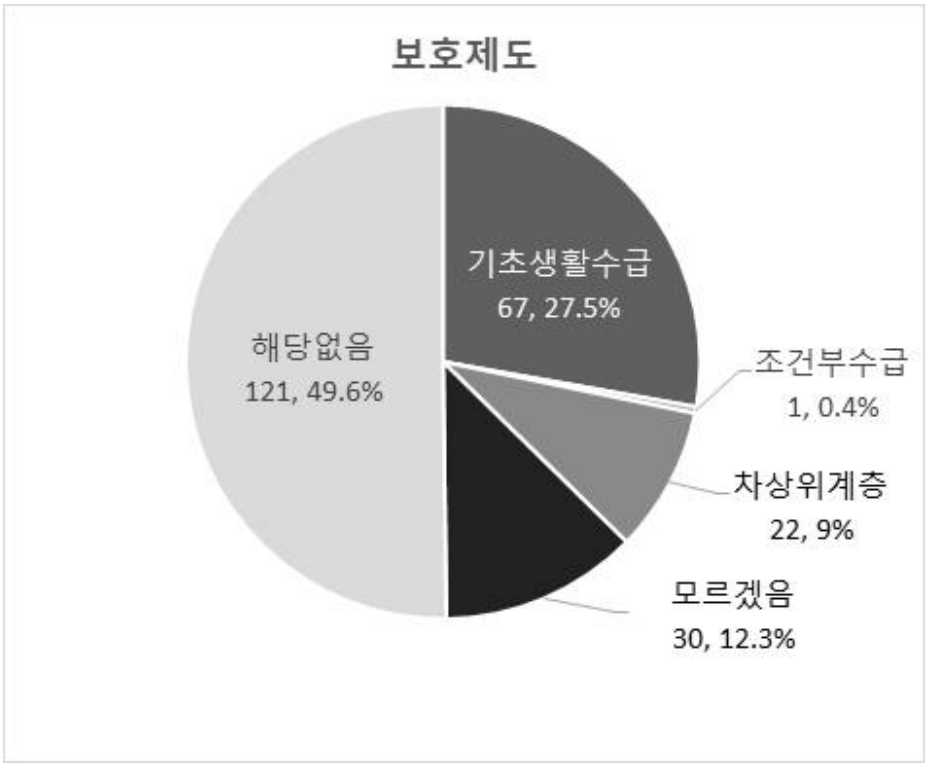


욕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직업'은 무직이 30.3%(74명)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와 학생은 25%(61명)로 나타났다. 근로수입이 있는 직업 중에는 자영업이 19.7%(48명)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 및 공무원이 11.9%(29명), 프리랜서가 4.5%(11명),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가 2%(10명)로 나타났다.

5) 보호제도

<그림-6> 인구학적 분석결과-보호제도

전체(결측)=2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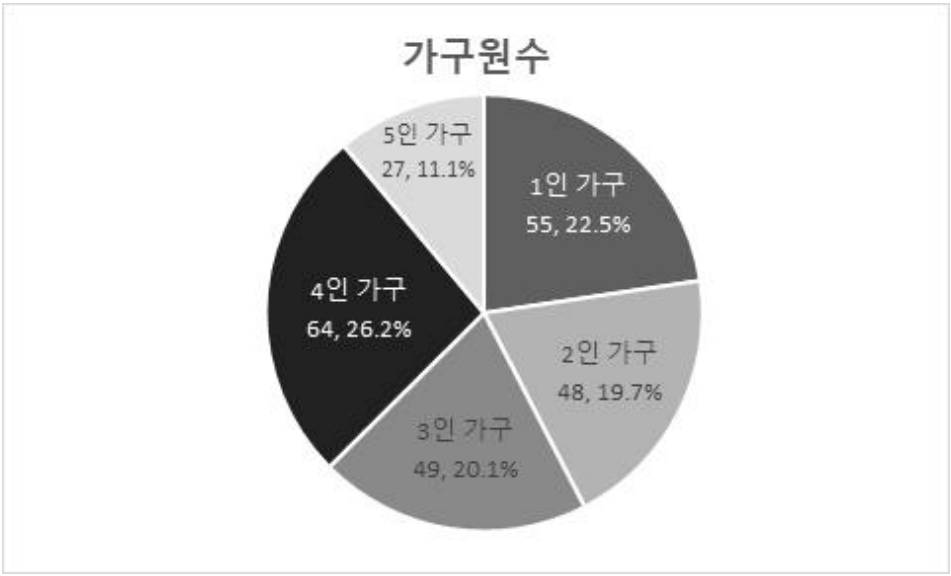


욕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어느 '보호제도'도 해당되지 않는 응답자가 49.6%(1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조건부수급/차상위계층으로 보호제도 안에 있는 응답자가 36.9%(90명)로 나타났다.

6) 가구원수

<그림-7> 인구학적 분석결과-가구원수

전체(결측)=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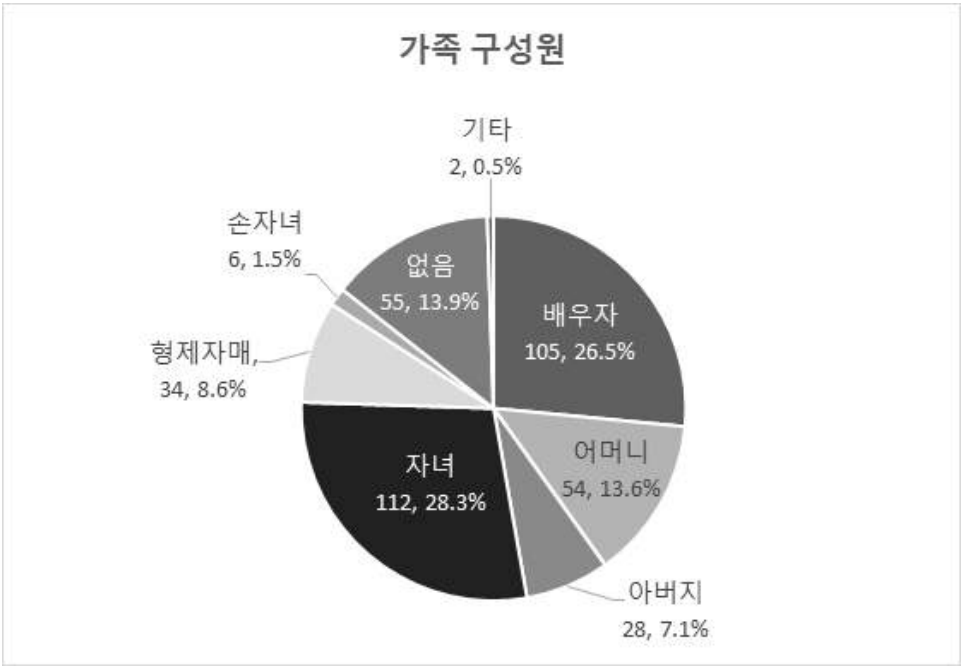


욕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가구원수'는 2~3명인 가구가 39.8%(97명)로 가장 많았다. 4명 이상의 가구는 37.3%(91명)이고, 1인 가구가 22.5%(55명)로 나타났다.

7) 가족구성원

<그림-8> 인구학적 분석결과-가족구성원

중복응답 전체=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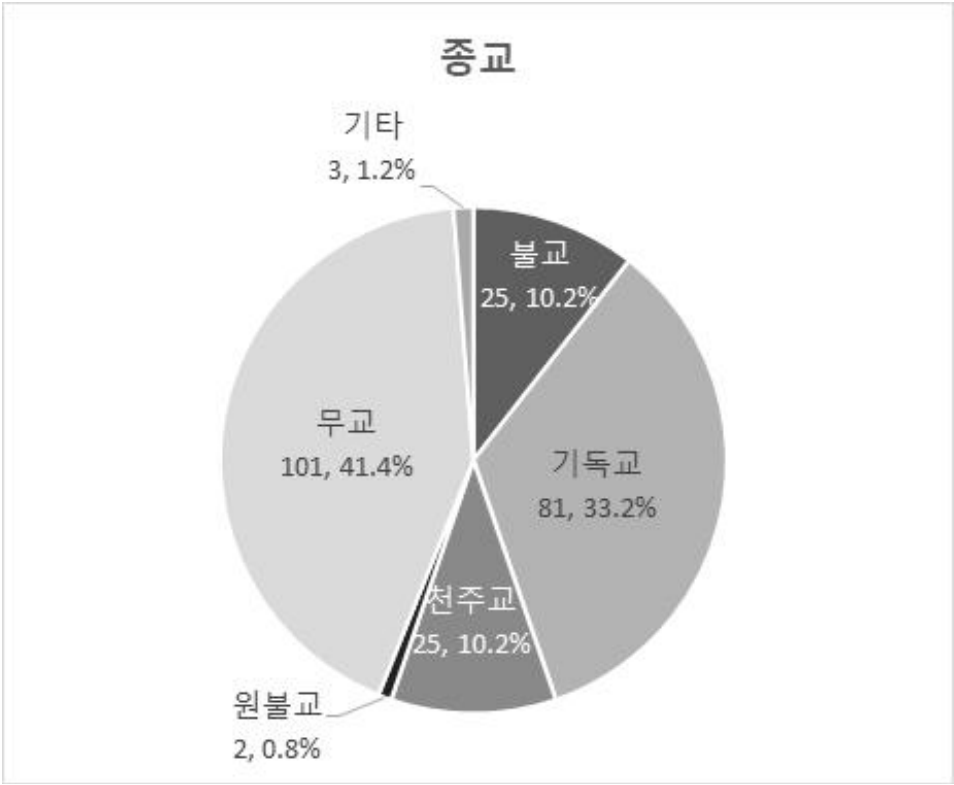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중복응답한 빈도결과이다. 욕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46.0%(112명)은 자녀를 포함하는 가구이며 전체의 43.2%(105명)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포함하는 가구는 33.7%(82명)로 나타났고 혼자 거주하는 가구는 13.9%(55명)로 나타났다.

8) 종교

<그림-9> 인구학적 분석결과-종교

전체(결측)=2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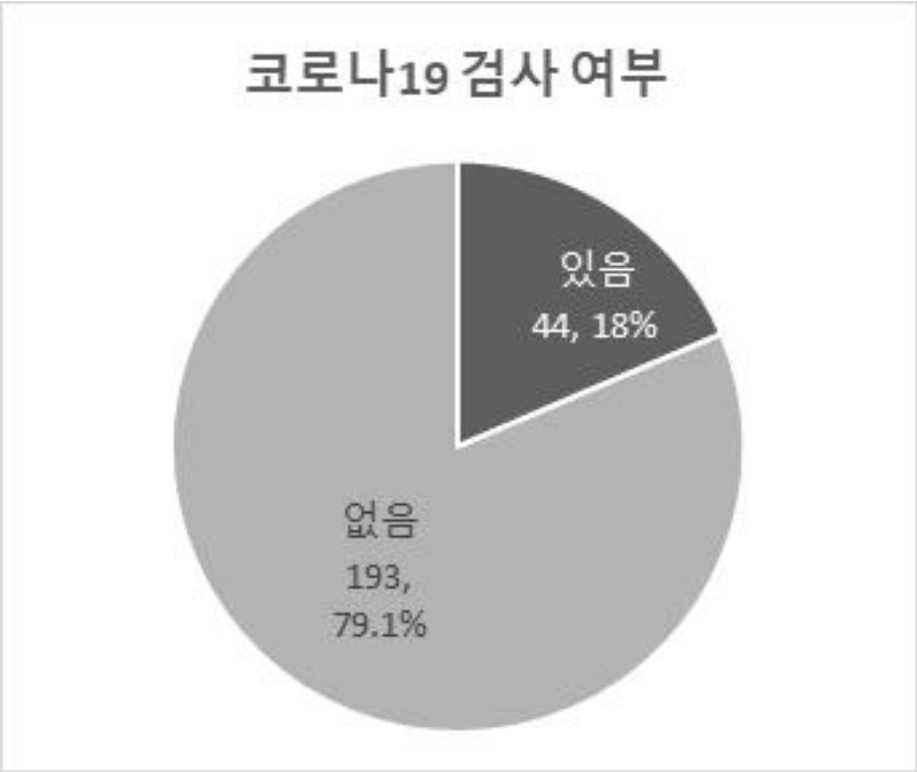


욕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41.4%(101명)는 무교라고 응답했다.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33.2%(81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불교와 천주교가 각각 10.2%(25명)로 나타났다.

9) 코로나-19 검사 여부

<그림-10> 인구학적 분석결과-코로나-19 검사 여부

전체(결측)=2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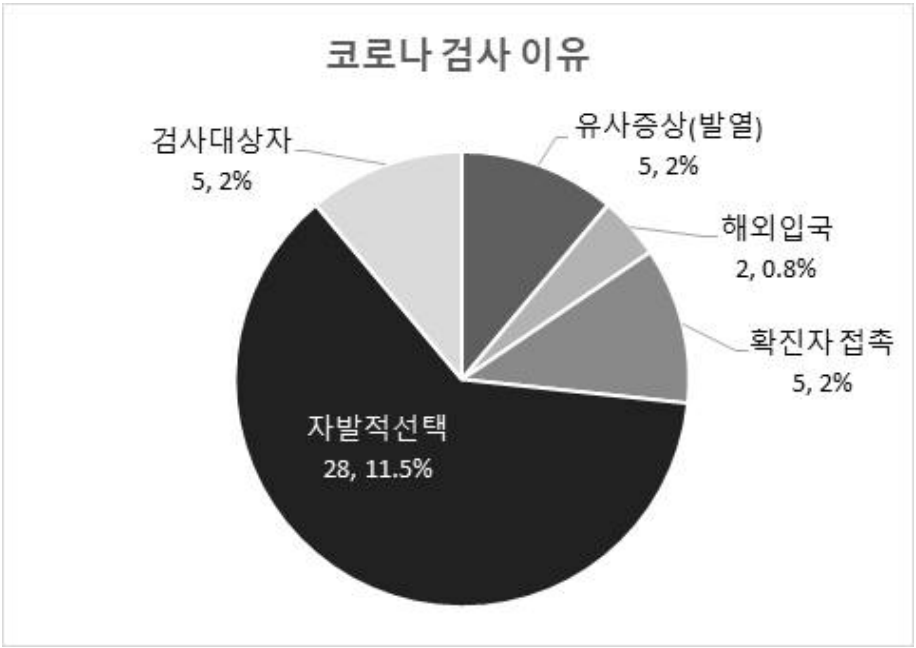


욕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79.1%(193명)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8.0%(44명)은 받았다고 응답해 10명 중 2명이 안되게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나타났다.

10) 코로나-19 검사 이유

<그림-11> 인구학적 분석결과-코로나-19 검사 이유

전체(결측)=44(200)



앞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 44명 중 63.64%(28명)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선택했다고 응답했으며 유사 증상, 확진자 접촉, 검사 대상자의 이유로 검사를 받은 응답자는 각각 2%(5명)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이후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분석

1)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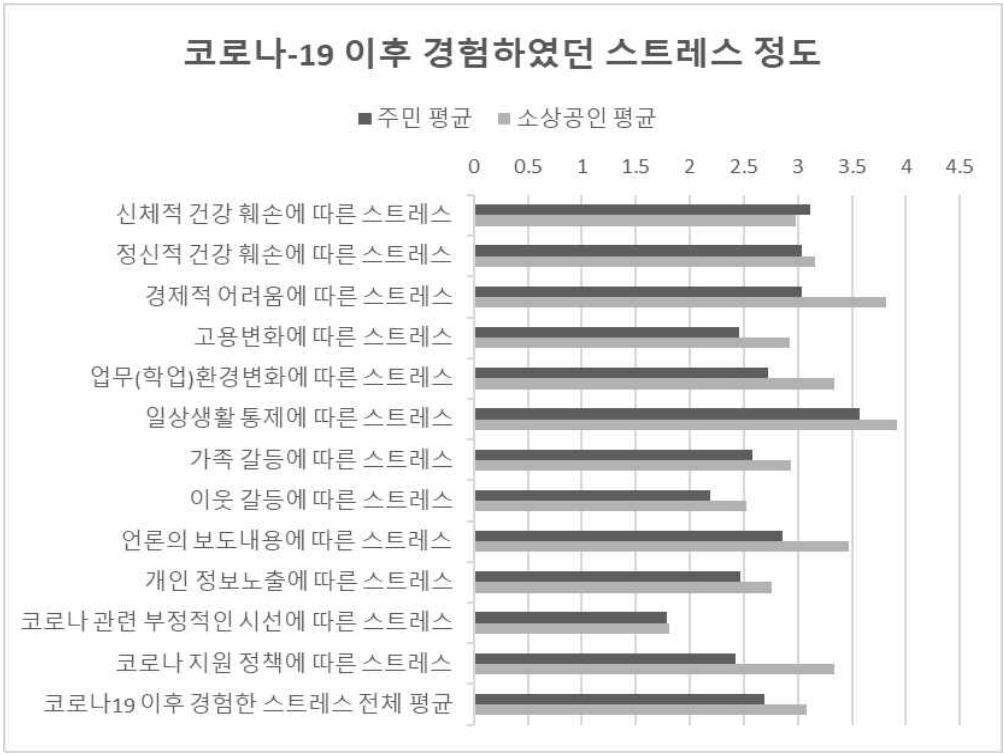
(1) 주민-소상공인 평균분석

<표-3>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문 항	주민 평균 (전체 N=194)	소상공인 평균 (전체 N=50)	유의확률 (p)
나(가족)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질병, 영양 및 운동부족 등)	3.11	2.98	.557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우울, 불안 등)	3.04	3.16	.559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3.04	3.82	.000**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2.46	2.92	.032*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2.72	3.34	.008**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경조사,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등)	3.57	3.92	.046*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2.58	2.94	.060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2.19	2.52	.061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2.86	3.47	.004**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2.47	2.76	.129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79	1.81	.900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2.42	3.34	.000**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전체 평균	**2.69**	**3.08**	**.005****
전체(결측) =	194(0)	43(7)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그림-12>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이후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5점 척도)로 느꼈는지를 묻고 집단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전체평균’을 보면, 주민의 평균은 2.69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소상공인의 평균은 3.08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경험한다고 나타났다.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보통 또는 보통이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가장 큰 3순위 문항은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전체평균’,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모두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를 보면, 소상공인은 3.34점으로 보통이상이고 주민은 2.42점으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0.9점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 지원 정책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는 문항의 평균점수를 보면, 소상공인은 3.82점으로 보통이상이고 주민은 3.04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0.8점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는 평균점수를 보면, 소상공인은 3.34점으로 보통이상이고 주민은 2.72점으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0.6점으로 소상공인이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에 따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업무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모두 주민보다 소상공인이 보통 이상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영역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에 따라 운영시간이 감소함에 따른 영향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운영시간 감소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정부 지원 정책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들이 소상공인의 삶에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라 유추된다.

(2-1) 주민 빈도분석

<표-4>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주민 빈도분석

전체=19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나(가족)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질병, 영양 및 운동부족 등)	39	20.1%	27	13.9%	36	18.6%	58	29.9%	34	17.5%	194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우울, 불안 등)	42	21.6%	28	14.4%	31	16.0%	67	34.5%	26	13.4%	194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38	19.6%	27	13.9%	45	23.2%	57	29.4%	27	13.9%	194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77	39.7%	26	13.4%	30	15.5%	41	21.1%	18	9.3%	192(2)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64	33.0%	19	9.8%	37	19.1%	50	25.8%	22	11.3%	192(2)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경조사,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등)	25	12.9%	16	8.2%	30	15.5%	70	36.1%	53	27.3%	194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64	33.0%	29	14.9%	43	22.2%	40	20.6%	18	9.3%	194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86	44.3%	40	20.6%	27	13.9%	28	14.4%	13	6.7%	194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48	24.7%	24	12.4%	48	24.7%	50	25.8%	22	11.3%	192(2)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39	20.1%	25	12.9%	45	23.2%	56	28.9%	26	13.4%	191(3)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13	58.2%	35	18%	18	9.3%	14	7.2%	9	4.6%	189(5)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72	37.1%	34	17.5%	40	20.6%	27	13.9%	20	10.3%	193(1)

스트레스 항목별로 주민이 경험한 정도에 대한 빈도표이다.

주민이 스트레스 경험정도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63.4%는 일상생활의 통제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47.9%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세 번째로 주민의 47.4%가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민이 스트레스 경험정도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76.2%는 코로나 관련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64.9%는 이웃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세 번째로 주민의 54.6%가 코로나 지원정책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정신적·신체적 건강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기회가 줄어들면서 정신적·신체적 건강훼손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된다. 이에 복지관은 해당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민을 만났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서구보건소 등 적절한 지역 내 기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 네트워크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다.

(2-2) 소상공인 빈도분석

<표-5>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정도-소상공인 빈도분석

전체=50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나(가족)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질병, 영양 및 운동부족 등)	7	14%	13	26%	8	16%	16	32%	5	10%	49(1)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우울, 불안 등)	7	14%	8	16%	11	22%	16	32%	7	14%	49(1)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2	4%	3	6%	11	22%	19	38%	14	28%	49(1)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9	18%	9	18%	13	26%	13	26%	5	10%	49(1)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6	12%	8	16%	6	12%	18	36%	9	18%	47(3)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경조사,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등)	2	4%	2	4%	9	18%	21	42%	15	30%	49(1)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5	10%	13	26%	17	34%	10	20%	5	10%	50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8	16%	19	38%	14	28%	7	14%	2	4%	50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4	8%	5	10%	12	24%	20	40%	8	16%	49(1)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5	10%	19	38%	13	26%	9	18%	4	8%	50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21	42%	18	36%	4	8%	4	8%	0	0%	47(3)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4	8%	11	22%	12	24%	10	20%	13	26%	50

스트레스 항목별로 소상공인이 경험한 정도에 대한 빈도표이다.

소상공인이 스트레스 경험정도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에 따른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72%는 일상생활의 통제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66%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56%가 언론 보도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이 스트레스 경험정도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78%는 코로나 관련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54%는 이웃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48%가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타격을 받아 이에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있어 일상생활, 경제에 따른 스트레스를 모두 받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에는 다른 해 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관을 찾는 자영업자 주민들이 많았다.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관련 지침, 제도가 다르며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여러 가지로 운영됐다. 이에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코로나19 지원정책, 단계별 대응지침, 업장별 차이를 이해하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

(1) 주민-소상공인 평균분석

<표-6>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문 항	주민 평균 (전체 N=194)	소상공인 평균 (전체 N=50)	유의확률 (p)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식사, 수면, 휴식 등)	3.21	3.42	.258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3.28	3.25	.868
취미 및 여가활동	3.03	2.94	.677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3.04	3.23	.356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3.29	3.09	.310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2.51	2.41	.657
코로나 관련정보 찾아보기	2.93	3.00	.730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3.93	4.06	.456
사회적 거리두기(외출자제 등)	3.63	3.66	.888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2.04	2.09	.807
코로나19 스트레스대처방법 전체 평균	**3.11**	**3.13**	**.921**
전체(결측) =	181(13)	41(9)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그림-13>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5점 척도)를 묻고 집단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전체평균’을 보면, 주민의 평균은 3.11점, 소상공인의 평균은 3.13점으로 두 집단 모두 대처방법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0.02점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두 집단 간 비교분석을 보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방역수칙 지키기’ 순으로 집단 간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진행한 결과, 모든 문항의 p값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에 대한 평균 점수를 보면, 소상공인은 3.42점, 주민은 3.21점으로 두 집단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0.21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유지’가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에 대한 평균 점수를 보면, 소상공인은 3.23점으로 보통 이상, 주민은 3.0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0.19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가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방역수칙 지키기’에 대한 평균 점수를 보면, 소상공인은 4.06점, 주민은 3.93점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0.13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코로나-19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지키기’의 방법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두 집단 간의 항목 간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지는 점은 두 집단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집단 모두 4점(그렇다)에 가까운 평균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민의 인식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을 만날 때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프로그램 실 소독 등)을 지키며 주민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2-1) 주민 빈도분석

<표-7>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주민 빈도분석

전체=19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식사, 수면, 휴식 등)	24	12.4%	23	11.9%	56	28.9%	64	33%	23	11.9%	190(4)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25	12.9%	19	9.8%	48	24.7%	77	39.7%	23	11.9%	192(2)
취미 및 여가활동	39	20.1%	25	12.9%	45	23.2%	56	28.9%	26	13.4%	191(3)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37	19.1%	23	11.9%	47	24.2%	57	29.4%	24	12.4%	188(6)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26	13.4%	21	10.8%	48	24.7%	63	32.5%	33	17%	191(3)
종교활동(기도, 종교 영상시청 등)	75	38.7%	31	16%	24	12.4%	35	18%	26	13.4%	191(3)
코로나 관련정보 찾아 보기	38	19.6%	21	10.8%	65	33.5%	46	23.7%	19	9.8%	189(5)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16	8.2%	6	3.1%	26	13.4%	70	36.1%	72	37.1%	190(4)
사회적 거리두기(외출 자제 등)	20	10.3%	14	7.2%	37	19.1%	63	32.5%	55	28.4%	189(5)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82	42.3%	43	22.2%	43	22.2%	16	8.2%	5	2.6%	189(5)

스트레스 대처방법별로 주민이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한 빈도표이다.

주민이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도움이 됐다고 나타난 항목은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사회적 거리두기(외출자제 등)',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73.2%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60.9%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민의 51.6%는 운동 및 신체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주민이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나타난 항목은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종교활동

(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취미 및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64.5%는 상담 및 치료가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64.5%는 종교활동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민의 33%는 취미 및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방법으로 방역수칙 지키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코로나19 시기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을 만날 때에는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주민들은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는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가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인지, 해당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않은 것인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주민을 만날 때 묻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2) 소상공인 빈도분석

<표-8>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소상공인 빈도분석

전체=50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식사, 수면, 휴식 등)	2	4%	5	10%	19	38%	15	30%	7	14%	48(2)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활동	3	6%	7	14%	18	36%	15	30%	5	10%	48(2)
취미 및 여가활동	7	14%	9	18%	18	36%	8	16%	6	12%	48(2)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3	6%	8	16%	16	32%	15	30%	5	10%	47(3)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6	12%	5	10%	16	32%	17	34%	2	4%	46(4)
종교활동(기도, 종교 영상시청 등)	13	26%	14	28%	6	12%	8	16%	3	6%	44(6)
코로나 관련정보 찾아보기	4	8%	9	18%	19	38%	11	22%	3	6%	46(4)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1	2%	0	0%	10	20%	20	40%	16	32%	47(3)
사회적 거리두기(외출자제 등)	4	8%	2	4%	8	16%	21	42%	9	18%	44(6)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19	38%	9	18%	14	28%	3	6%	1	2%	46(4)

스트레스 대처방법별로 소상공인이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한 빈도표이다.

소상공인이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도움이 됐다고 나타난 항목은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사회적 거리두기(외출자제 등)',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식사, 수면, 휴식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72%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60%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44%는 생활습관유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이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나타난 항목은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종교

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취미 및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32%는 상담 및 치료가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54%는 종교활동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56%는 취미 및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방법으로 방역수칙 지키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코로나19 시기 중 소상공인을 만날 때에는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도 주민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는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주민과 동일하게 어떤 이유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고 해당 자원의 연계가 필요한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의 경험정도

(1) 주민-소상공인 평균분석

<표-9>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문 항	주민 평균 (전체 N=194)	소상공인 평균 (전체 N=50)	유의확률 (p)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2.97	3.42	.024*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2.86	3.21	.075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2.94	3.19	.243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3.04	3.19	.460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2.72	2.81	.572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2.15	2.34	.333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2.24	2.38	.459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1.92	2.13	.201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1.75	1.56	.291
심리정서변화 전체 평균	**2.51**	**2.69**	**.203**
전체(결측) =	**192(2)**	**46(4)**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그림-14>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가 어느 정도(5점 척도)로 변화했는지를 묻고 집단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문항은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우울정도를 확인하였다.

'심리정서변화 전체평균'을 보면, 주민의 평균은 2.51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평균은 2.09점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0.4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코로나-19이후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평균차이를 보면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문항 순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컸다.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진행한 결과,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의 문항이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문항을 보면, 소상공인은 3.42점으로 해당 항목을 보통이상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고 주민은 2.97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0.45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해당 항목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문항의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은 3.21점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고 주민은 2.86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0.35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해당 항목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문항의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은 3.19점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민은 2.94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0.24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해당 항목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우울증을 선별하는 모든 문항에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우울감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문항들은 심리정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이 주민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영업 시간 감소, 폐업, 손님 감소, 매출 감소 등)가 더 큰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주민들은 모든 항목이 3점 이하로 응답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정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1) 주민 빈도분석

<표-10>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주민 빈도분석

전체=19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33	17%	35	18%	53	27.3%	49	25.3%	23	11.9%	193(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3	17%	45	23.2%	50	25.8%	46	23.7%	19	9.8%	193(1)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34	17.5%	45	23.2%	39	20.1%	50	25.8%	26	13.4%	194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34	17.5%	32	16.5%	48	24.7%	53	27.3%	27	13.9%	194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44	22.7%	35	18%	64	33%	31	16%	19	9.8%	193(1)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75	38.7%	57	29.4%	30	15.5%	19	9.8%	12	6.2%	193(1)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67	34.5%	52	26.8%	44	22.7%	20	10.3%	10	5.2%	193(1)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95	49%	49	25.3%	29	14.9%	10	5.2%	10	5.2%	193(1)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114	58.8%	40	20.6%	20	10.3%	12	6.2%	7	3.6%	193(1)

심리정서변화를 느꼈는지에 대해 주민이 응답한 빈도표이다.

주민이 느낀 심리정서변화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41.2%는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39.2%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민의 37.2%는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주민이 느낀 심리정서변화 중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79.4%는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68.1%는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민의 61.3%는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2) 소상공인 빈도분석

<표-11>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소상공인 빈도분석

전체=50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3	6%	3	6%	19	38%	17	34%	6	12%	48(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	6%	8	16%	19	38%	12	24%	6	12%	48(2)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5	10%	8	16%	15	30%	13	26%	7	14%	48(2)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4	8%	10	20%	10	20%	21	42%	3	6%	48(2)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3	6%	14	28%	23	46%	5	10%	3	6%	48(2)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11	22%	20	40%	8	16%	5	10%	3	6%	47(3)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9	18%	20	40%	10	20%	7	14%	1	2%	47(3)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11	22%	26	52%	7	14%	2	4%	2	4%	48(2)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30	60%	14	28%	1	2%	1	2%	2	4%	48(2)

심리정서변화를 느꼈는지에 대해 소상공인이 응답한 빈도표이다.

소상공인이 느낀 심리정서변화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48%는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46%는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40%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이 느낀 심리정서변화 중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88%는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74%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음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62%는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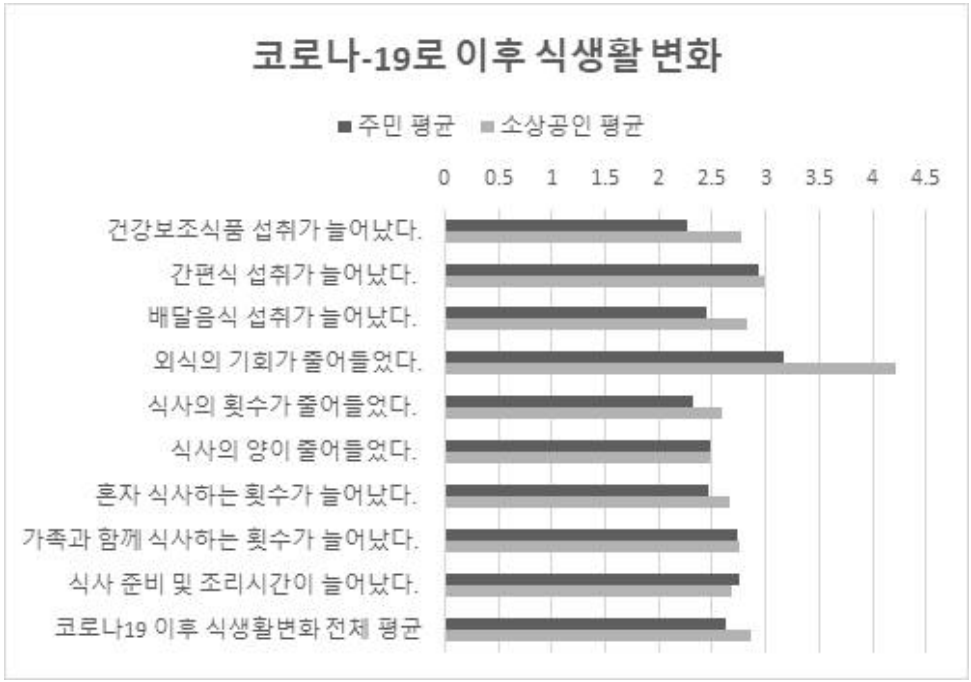
(1) 주민-소상공인 평균분석

<표-12>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문 항	주민 평균 (전체 N=194)	소상공인 평균 (전체 N=50)	유의확률 (p)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2.26	2.78	.003**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2.93	2.98	.806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2.44	2.82	.059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3.17	4.22	.000**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2.32	2.60	.108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2.48	2.48	.997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2.46	2.67	.297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2.74	2.76	.935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2.75	2.69	.756
코로나19 이후 식생활변화 전체 평균	**2.62**	**2.87**	**.013***
전체(결측) =	189(5)	49(1)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그림-15>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이후 식생활이 어느 정도(5점 척도)로 변화했는지를 묻고 집단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 이후 식생활변화 전체 평균’을 보면, 주민의 평균은 2.62점이고 소상공인은 2.87점으로 두 집단 모두 보통 이하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0.25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식생활 변화를 0.25점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평균차이를 보면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순으로 주민, 소상공인 집단 간의 식생활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식생활변화 전체 평균’,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의 문항에서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문항에 소상공인은 4.22점이고 주민은 3.17점으로 소상공인은 코로나 이후 외식이 줄었다고 나타났고 주민은 외식 관련 변화가

보통이라고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1.05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외식이 줄었다고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는 문항에 소상공인은 2.78점이고 주민은 2.26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식생활의 변화를 보통수준 이하고 느꼈다고 답했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0.52점으로 소상공인이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식생활의 변화를 0.52점 더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는 문항에 소상공인은 2.82점이고 주민은 2.44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배달음식 섭취가 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0.38점으로 소상공인이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식생활의 변화를 0.52점 더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대부분의 식생활 영역에서 주민과 소상공인의 평균이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식의 기회가 줄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은 4점 이상으로 주민과 1.05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로 외식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유추된다. 또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소상공인이 근로를 마친 후 이용할 수 있는 상점, 외식할 수 있는 가게가 없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1) 주민 빈도분석

<표-13>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주민 빈도분석

전체=19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69	35.6%	50	25.8%	39	20.1%	28	14.4%	8	4.1%	194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43	22.2%	36	18.6%	33	17%	55	28.4%	27	13.9%	194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71	36.6%	39	20.1%	30	15.5%	33	17.0%	20	10.3%	193(1)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43	22.2%	17	8.8%	34	17.5%	64	33.0%	36	18.6%	194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66	34.0%	49	25.3%	36	18.6%	28	14.4%	12	6.2%	191(3)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55	28.4%	50	25.8%	40	20.6%	39	20.1%	10	5.2%	194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59	30.4%	46	23.7%	44	22.7%	28	14.4%	16	8.2%	193(1)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53	27.3%	28	14.4%	45	23.2%	50	25.8%	17	8.8%	193(1)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53	27.3%	29	14.9%	51	26.3%	36	18.6%	25	12.9%	194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를 느낀 정도에 주민이 응답한 빈도표이다.

주민이 식생활변화를 느낀 항목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51.6%는 외식의 기회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42.3%는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민의 34.6%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주민이 식생활변화를 느낀 항목 중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61.4%는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59.3%는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민의 56.7%는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주민의 경우 간편식이 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외식의 기회가 줄면서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게 되며 친구나 지인을 만나기보다 가족과 식사하게 되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정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 횟수가 증가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모든 음식을 해 먹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간편식을 선택하여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2-2) 소상공인 빈도분석

<표-14>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소상공인 빈도분석

전체=50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6	12%	12	24%	22	44%	7	14%	3	6%	50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5	10%	13	26%	15	30%	12	24%	5	10%	50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7	14%	15	30%	13	26%	10	20%	5	10%	50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1	2%	5	10%	25	50%	18	36%	0	0%	49(1)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7	14%	17	34%	16	32%	9	18%	1	2%	50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9	18%	14	28%	21	42%	6	12%	0	0%	50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9	18%	13	26%	17	34%	5	10%	5	10%	49(1)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6	12%	12	24%	21	42%	8	16%	2	4%	49(1)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8	16%	9	18%	22	44%	10	20%	0	0%	49(1)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를 느낀 정도에 소상공인이 응답한 빈도표이다.

소상공인이 식생활변화를 느낀 항목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36%는 외식의 기회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34%는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30%는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이 식생활변화를 느낀 항목 중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48%는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46%는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의 44%는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44%는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외식이 줄어듦과 동시에 간편식, 배달음식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일을 마친 이후에는 식당도 함께 문을 닫아 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일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식사를 간편하게 먹기 위해 직접 요리를 하기 보다는 간편식과 배달음식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5)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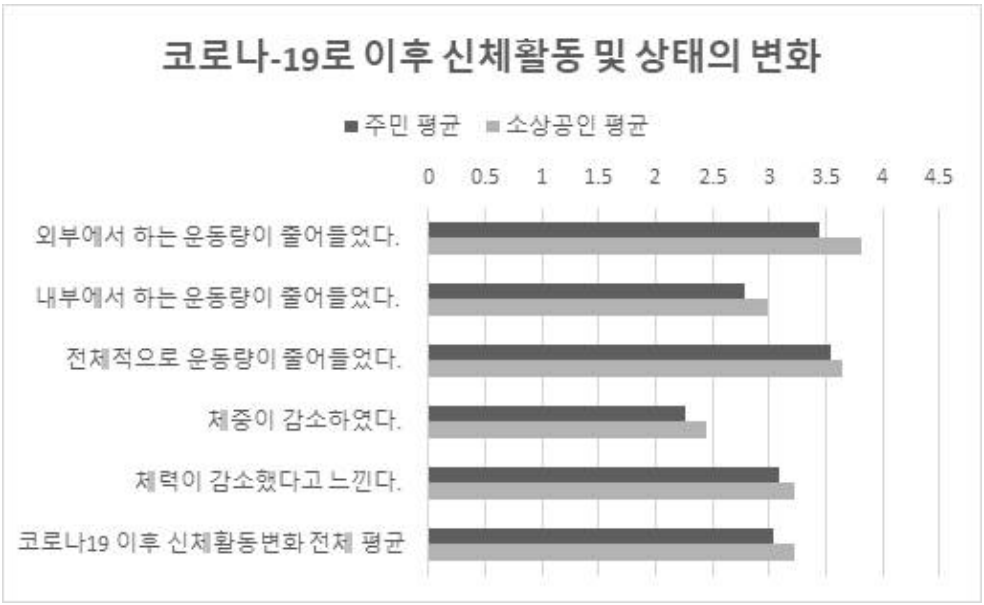
(1) 주민-소상공인 평균분석

<표-15>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문 항	주민 평균 (전체 N=194)	소상공인 평균 (전체 N=50)	유의확률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3.45	3.82	.025*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2.79	2.98	.265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3.55	3.64	.638
체중이 감소하였다.	2.27	2.45	.315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3.09	3.22	.495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신체활동변화 전체 평균	**3.03**	**3.23**	**.134**
전체(결측) =	**192(2)**	**49(1)**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그림-16>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5점 척도)로 변화했는지를 묻고 집단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신체활동변화의 전체평균’을 보면, 주민의 평균은 3.03점이고 소상공인은 3.23점으로 두 집단 모두 신체활동 변화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0.2점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평균차이를 보면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체중이 감소하였다.’,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순으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진행한 결과,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의 문항에서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는 문항에 소상공인은 3.82점이고 주민은 3.45점으로 주민과 소상공인은 외부 운동량이 보통수준 이상으로 줄었다고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0.37점으로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운동량이 줄었다고 나타났다.

‘체중이 감소하였다.’는 문항에 소상공인은 2.45점이고 주민은 2.27점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 보통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0.18점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소상공인은 3.22점이고 주민은 3.09점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소상공인이 주민보다 0.13점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2-1) 주민 빈도분석

<표-16>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주민 빈도분석

전체=19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외부(공원, 산 등) 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27	13.9%	18	9.3%	35	18%	69	35.6%	45	23.2%	194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40	20.6%	40	20.6%	55	28.4%	39	20.1%	20	10.3%	194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23	11.9%	13	6.7%	35	18%	79	40.7%	43	22.2%	193(1)
체중이 감소하였다.	63	32.5%	51	26.3%	50	25.8%	22	11.3%	7	3.6%	193(1)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39	20.1%	31	16%	32	16.5%	58	29.9%	34	17.5%	194

주민이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에 변화를 느낀 정도에 대한 빈도표이다.

신체활동 및 상태변화 항목 중, 주민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외부(공원, 산 등) 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62.9%는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58.8%는 외부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민의 47.4%는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신체활동 및 상태변화 항목 중, 주민이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체중이 감소하였다.',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58.8%는 체중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주민의 41.2%는 내부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외부 운동량, 전체 운동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이에 따라 체력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원, 산에 가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또한 코

로나19로 인해 공원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산에 있는 운동기구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외부 운동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복지관에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 건강생활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의 건강상황이 어떠한지 운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바탕으로 어떻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2-2) 소상공인 빈도분석

<표-17>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소상공인 빈도분석

전체=50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6	12%	0	0%	9	18%	23	46%	12	24%	50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5	10%	8	16%	23	46%	11	22%	3	6%	50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3	6%	4	8%	11	22%	22	44%	10	20%	50
체중이 감소하였다.	7	14%	22	44%	13	26%	5	10%	2	4%	49(1)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5	10%	7	14%	17	34%	14	28%	7	14%	50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에 변화를 느낀 정도에 대한 빈도표이다.

신체활동 및 상태변화 항목 중, 소상공인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외부(공원, 산 등) 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70%는 외부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4%는 전체적인 운동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 42%는 체력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신체활동 및 상태변화 항목 중, 소상공인이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체중이 감소하였다.',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58%는 체중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소상공인의 26%는 내부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외부운동량과 전체운동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의 경우도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 접촉의 가능성이 있기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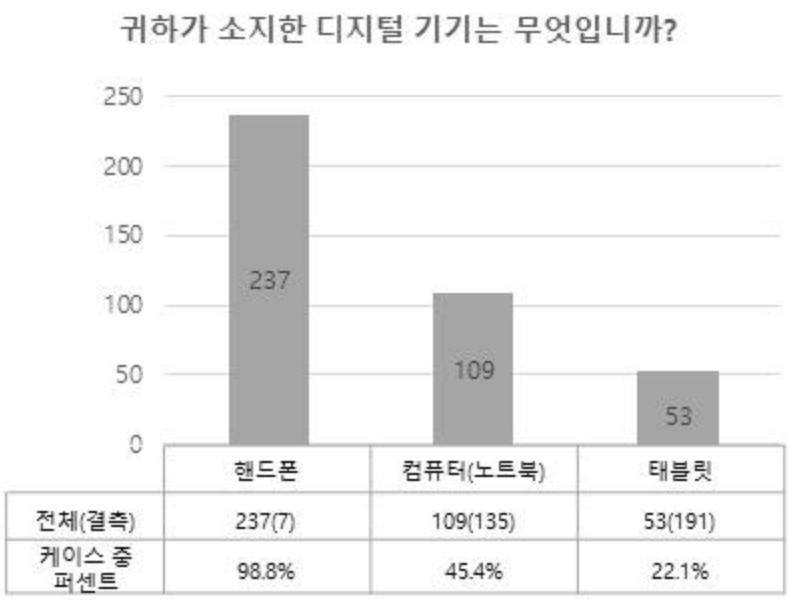
3.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

1) 정보획득 영역

(1) 소지한 디지털 기기

<그림-17> 정보획득-소지한 디지털 기기 분석결과

중복응답 전체=399



	핸드폰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전체(결측)	237(7)	109(135)	53(191)
케이스 중 퍼센트	98.8%	45.4%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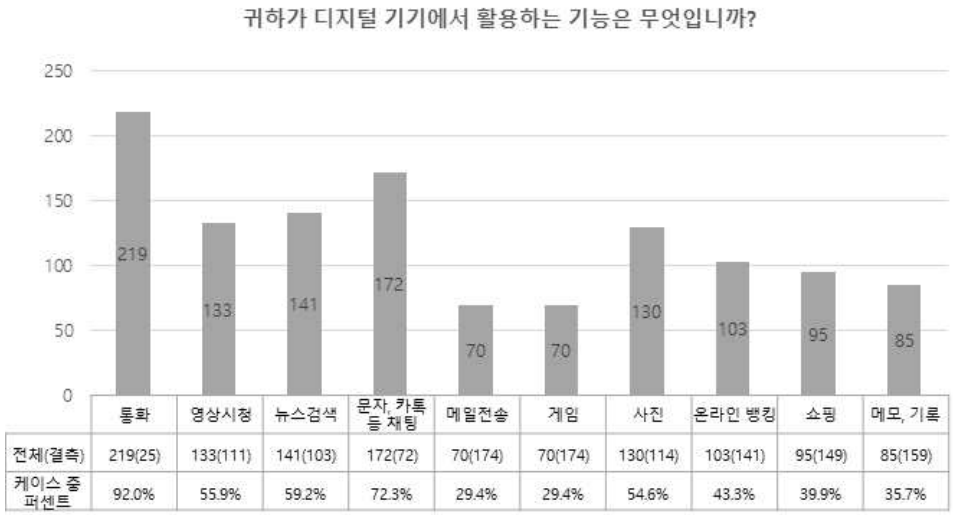
조사 참여자가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빈도결과이다. 참여자들은 소지한 디지털 기기에 대해 중복 응답했다.

핸드폰 > 컴퓨터(노트북) > 태블릿 순으로 해당 디지털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조사참여자의 98.8%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5.4%는 컴퓨터(노트북)를 소지했다고 응답했고 22.1%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주민과는 핸드폰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노트북 등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주민이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우선되어져야 하겠다.

(2) 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하는 기능

<그림-18> 정보획득-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하는 기능 분석결과

중복응답 전체=1218



	통화	영상시청	뉴스검색	문자, 카톡 등 채팅	메일전송	게임	사진	온라인 뱅킹	쇼핑	메모, 기록
전체(결측)	219(25)	133(111)	141(103)	172(72)	70(174)	70(174)	130(114)	103(141)	95(149)	85(159)
케이스 중 퍼센트	92.0%	55.9%	59.2%	72.3%	29.4%	29.4%	54.6%	43.3%	39.9%	35.7%

조사 참여자가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기능에 대한 빈도결과이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기능의 모든 문항에 중복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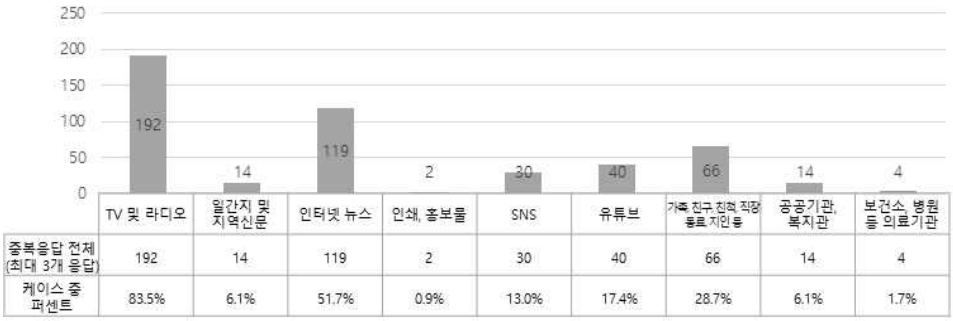
조사 참여자는 통화기능 > 채팅(문자/카톡 등) > 뉴스검색 > 영상시청 > 사진 기능 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주민의 92%는 통화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주민과 통화로는 소통이 원활하겠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자, 카톡 등 채팅은 참여주민의 72.3%가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문자, 카톡을 활용할 시에는 주민이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앞선 문항과 연동하여 볼 때, 대부분의 주민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휴대폰 기능 중에 하나인 문자, 카카오톡 등 채팅 기능이나 사진 기능 등 휴대폰 기능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에게 디지털 기기 관련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복지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역할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매체

<그림-19> 정보획득-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매체 분석결과

중복응답 전체=487



	TV 및 라디오	일간지 및 지역신문	인터넷 뉴스	인쇄, 홍보물	SNS	유튜브	가족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지인 등	공공기관,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중복응답 전체 (최대 3개 응답)	192	14	119	2	30	40	66	14	4
케이스 중 퍼센트	83.5%	6.1%	51.7%	0.9%	13.0%	17.4%	28.7%	6.1%	1.7%

조사 참여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매체가 무엇인지 응답한 빈도 결과이다. 참여 주민들은 최대 3개까지의 문항에 답했다.

가장 많이 응답한 3가지는 'TV 및 라디오 > 인터넷뉴스 > 지인'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83.5%는 TV 및 라디오를 통해 코로나19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활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으로 조사 참여자의 51.7%가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19 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참여자의 28.7%는 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 등 지인을 통해 코로나 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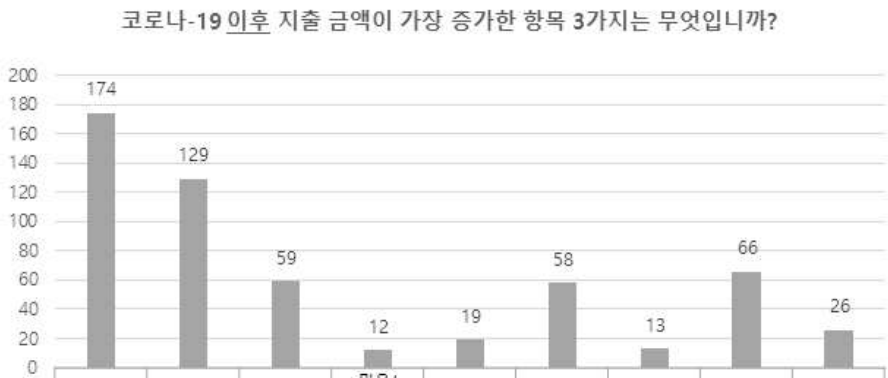
코로나19 정보를 접하는 매체는 앞선 문항인 소지한 디지털 기기, 디지털 활용 기능과 연동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어떤 디지털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보를 접하는 매체가 달라질 수 있어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이를 고려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2) 경제 영역

(1) 코로나-19 이후 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그림-20> 경제-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지출금액 분석결과

중복응답 전체=556



	식비	주거생활비	교육비	미용/의류비	여가활동비	의료비	교통비	방역용품비	상가임대료
중복응답 전체 (최대 3개 응답)	174	129	59	12	19	58	13	66	26
케이스 중 퍼센트	80.6%	59.7%	27.3%	5.6%	8.8%	26.9%	6.0%	30.6%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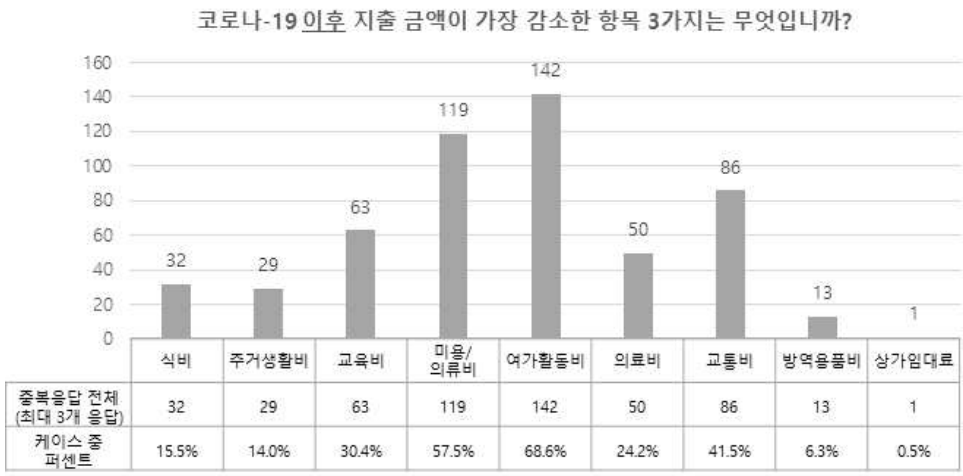
조사 참여자가 코로나19 이후 지출이 증가한 항목이 무엇인지 응답한 빈도 결과이다. 참여 주민들은 최대 3개까지의 문항에 답했다.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3가지는 '식비 > 주거생활비 > 방역용품비'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응답에 따르면 코로나19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은 식비로 참여자의 80.6%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주거 생활비가 59.7%, 방역용품비가 30.6%로 코로나19 이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식비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식비가 늘어났을 수 있고, 더불어 배달음식, 간편식 등 완제품을 사먹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식비가 증가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 코로나-19 이후 지출금액이 감소한 항목

<그림-21> 경제-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지출금액 분석결과

중복응답 전체=535



	식비	주거생활비	교육비	미용/의류비	여가활동비	의료비	교통비	방역용품비	상가임대료
중복응답 전체 (최대 3개 응답)	32	29	63	119	142	50	86	13	1
케이스 중 퍼센트	15.5%	14.0%	30.4%	57.5%	68.6%	24.2%	41.5%	6.3%	0.5%

조사 참여자가 코로나19 이후 지출이 감소한 항목이 무엇인지 응답한 빈도 결과이다. 참여 주민들은 최대 3개까지의 문항에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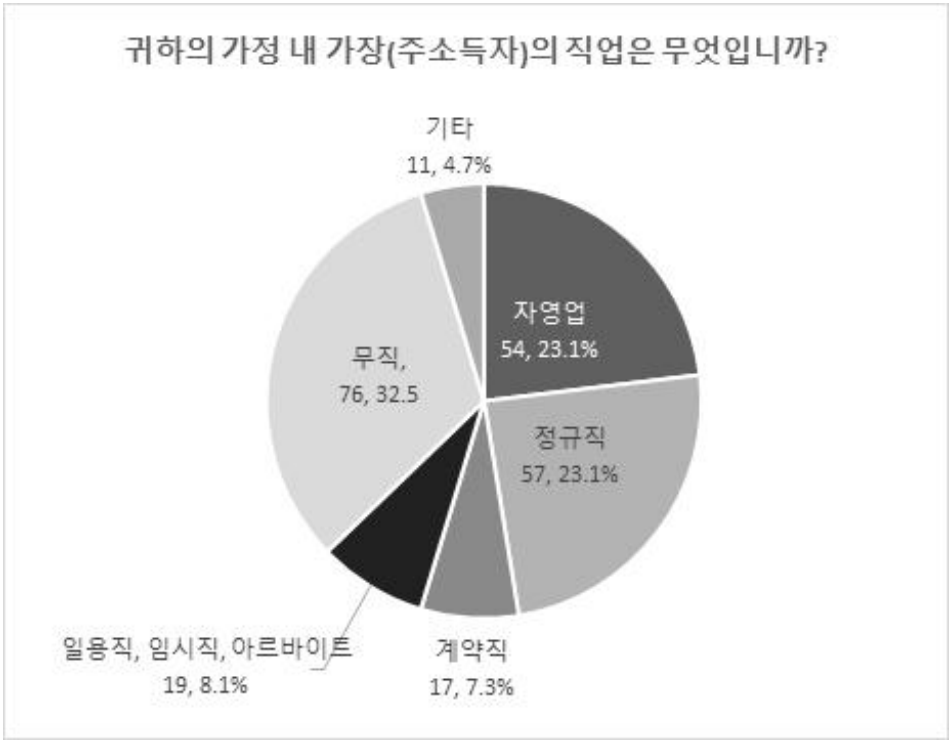
가장 많이 응답한 3가지는 '여가활동비 > 미용의류비 > 교통비'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응답에 따르면 코로나19 가장 많이 감소한 지출은 여가활동비로 응답자의 68.6%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미용의류비가 57.5%, 교통비가 41.5%로 코로나19 이후 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조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식비, 방역용품 등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지출 항목이 아닌 미용,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비, 미용의류비 등과 같이 주로 외부에서 지출이 되는 항목이 코로나19 이후 외출이 감소함에 따라 지출도 감소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3) 고용영역

(1) 가정 내 주소득자의 직업

<그림-22> 고용-가정 내 주소득자의 직업 분석결과

전체(결측)=23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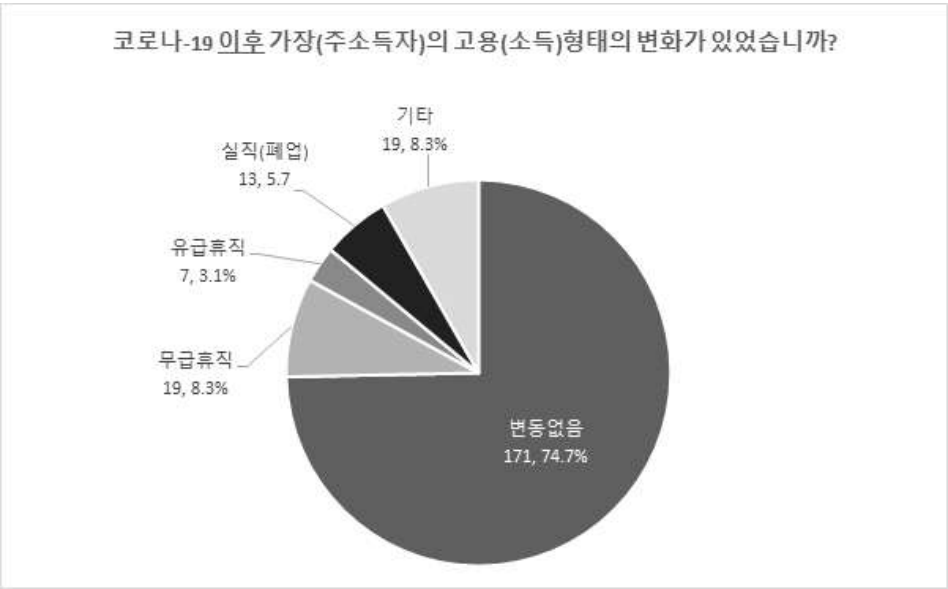


조사 참여자가 가정 내 주소득자의 직업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무응답자를 제외한 참여자 중 32.5%는 무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정규직이 24.4%, 자영업이 23.1%로 나타났다.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는 8.1%, 계약직은 7.3%로 나타났다.

(2) 주소득자의 고용(소득)형태의 변화

<그림-23> 고용-주소득자의 고용(소득)형태의 변화

전체(결측)=22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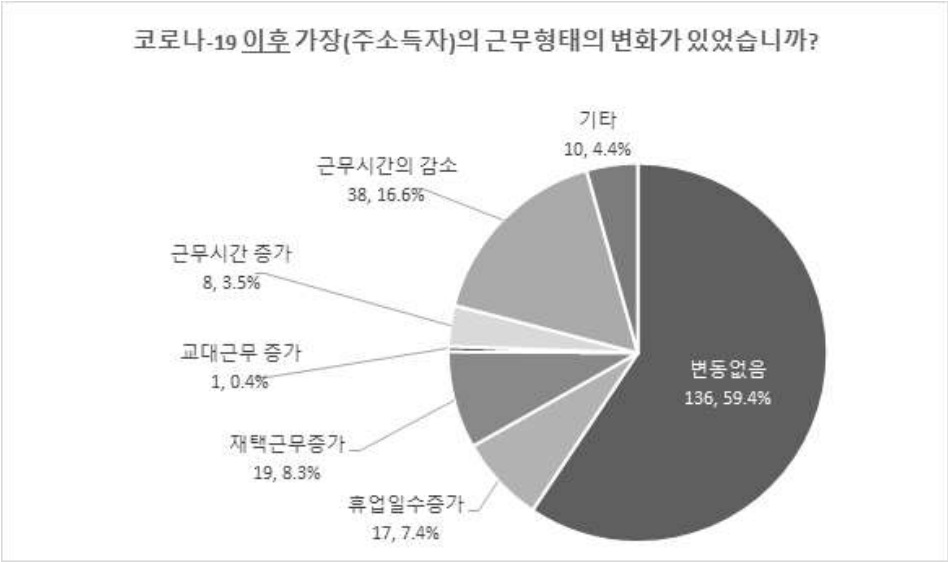


가정 내 주소득자의 고용(소득)형태의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무응답자를 제외한 참여자 중 74.7%는 변동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뒤이어 무급휴직으로 변화한 주민이 8.3%, 실직(폐업)했다고 응답한 주민이 5.7%로 나타났다.

(3) 주소득자의 근무형태 변화

<그림-24> 고용-주소득자의 근무형태 변화

전체(결측)=22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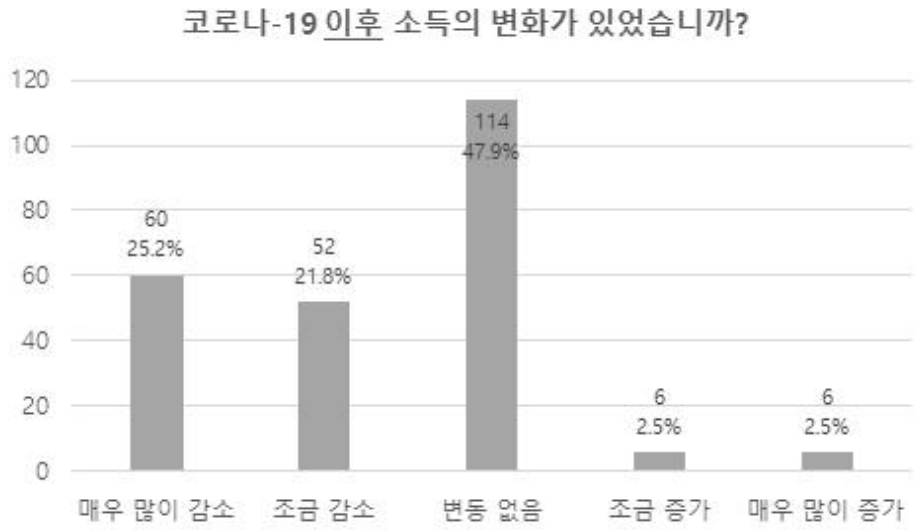


가정 내 주소득자의 근무형태의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무응답자를 제외한 참여자 중 59.4%는 변동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뒤이어 재택근무가 증가한 참여자가 8.3%로, 근무(영업)시간이 감소한 참여자가 6.6%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근무형태에 변화한 주민들도 있으나 59.4%의 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근무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의 변화

<그림-25> 고용-소득의 변화

전체(결측)=2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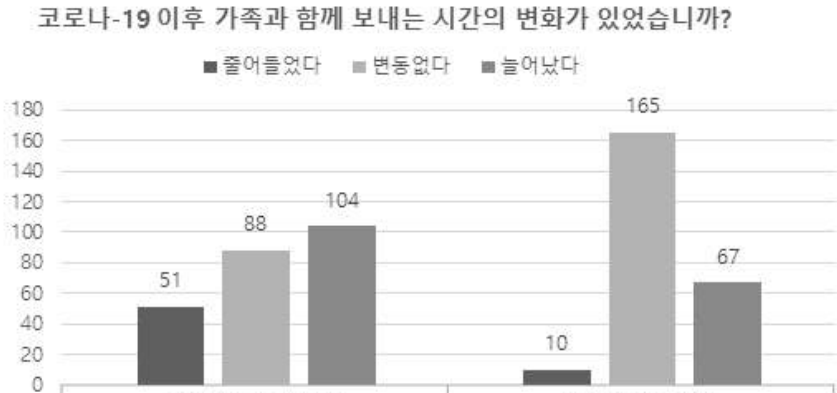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소득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무응답자를 제외한 참여자 중 46.7%는 변동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뒤이어 [조금 감소], [매우 많이 감소]라고 응답하여 소득이 감소했다고 느낀 주민은 45.9%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의 변화와 맞물린 응답결과라고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 무급휴직, 영업시간 감소에 따라 소득이 감소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5) 가족 간 사회적 관계 영역

<그림-26> 가족 간 사회적 관계 분석결과



문항	가족과의 시간 변화			가족 간 갈등 변화		
	줄었다	변동없다	늘어났다	줄었다	변동없다	늘어났다
빈도	51	88	104	10	165	67
퍼센트	21.0%	36.2%	42.8%	4.1%	68.2%	27.7%
전체(결측)	243(1)			2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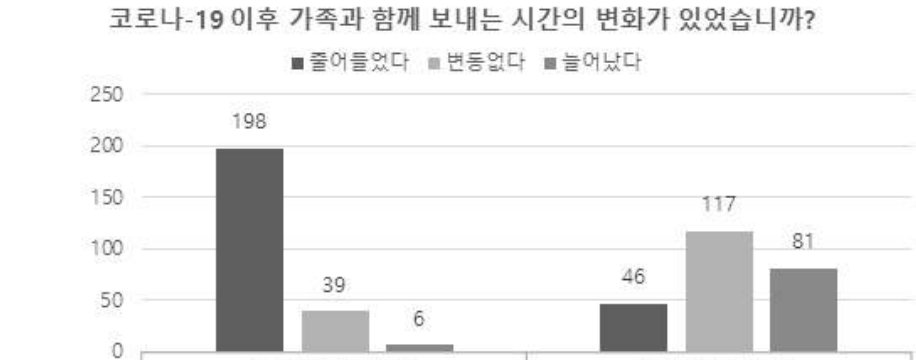
조사참여자가 가족과의 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가족관계에서 참여자들은 42.6%가 가족과의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또 가족 갈등에 대해서는 67.6%가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족 간 갈등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으나 갈등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빈도도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시간 접촉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6) 이웃 간 사회적 관계 영역

<그림-27> 가족 간 사회적 관계 분석결과



문항	이웃과의 시간 변화			이웃 간 갈등 변화		
	줄었다	변동없다	늘어났다	줄었다	변동없다	늘어났다
빈도	198	39	6	46	117	81
퍼센트	81.5%	16.0%	2.5%	18.9%	48.0%	33.2%
전체(결측)	243(1)			244(0)		

조사참여자가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이웃관계에서 주민들은 81.1%가 이웃과의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고 이웃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48.0%가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웃과의 시간 변화는 없다고 응답한 빈도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웃 간 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2%로 나타났다.

4.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에 대한 분석

1) 주민-소상공인 평균분석

<표-18>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주민·소상공인 평균비교

전체=19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결측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22	11.3%	18	9.3%	64	33%	53	27.3%	30	15.5%	187(7)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체온측정 등).	2	1%	5	2.6%	23	11.9%	70	36.1%	86	44.3%	186(8)
복지관은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항균필름, 정기소독 등)	2	1%	3	1.5%	30	15.5%	74	38.1%	76	39.2%	185(9)
복지관은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5	2.6%	6	3.1%	49	25.3%	78	40.2%	47	24.2%	185(9)
복지관은 위생(방역)용품을 적절히 구비(지급)하고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6	3.1%	4	2.1%	34	17.5%	78	40.2%	63	32.5%	185(9)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1	0.5%	2	1%	31	16%	80	41.2%	71	36.6%	185(9)

복지관 이용(방역) 항목별로 주민이 경험한 정도에 대한 빈도표이다.

주민이 복지관 이용(방역) 항목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체온측정 등).',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복지관은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항균필름, 정기소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80.4%는 복지관이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열감지카메라, 체온측정 등)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주민의 77.8%는 복지관이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세 번째로 주민의 77.3%가 복지관이 항균필름 부착, 정기소독 등의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이 복지관 이용(방역) 항목에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는 문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20.6%는 복지관이 코로나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복지관은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문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5.7%는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25.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복지관에서 방역 관련 장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및 소독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내부도 청결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 정보는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실제 방역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해 복지관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본문- Ⅲ.

욕구조사 교차분석

Ⅲ. 욕구조사 교차분석

1. 정보 영역

1) 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교차분석

<표-19> 교차분석-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전체(결측)=239(5)

구분		빈도	핸드폰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전체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연령대	10대 이하	19	90.5%	7.9%	16	76.2%	6.7%	11	52.4%	4.6%	21	8.8%
	20대	18	100.0%	7.5%	14	77.8%	5.9%	5	27.8%	2.1%	18	7.5%
	30대	28	100.0%	11.7%	19	67.9%	7.9%	12	42.9%	5.0%	28	11.7%
	40대	48	100.0%	20.1%	28	58.3%	11.7%	18	37.5%	7.5%	48	20.1%
	50대	27	100.0%	11.3%	12	44.4%	5.0%	4	14.8%	1.7%	27	11.3%
	60대	33	97.1%	13.8%	13	38.2%	5.4%	2	5.9%	0.8%	34	14.2%
	70대	32	100.0%	13.4%	3	9.4%	1.3%	0	0.0%	0.0%	32	13.4%
	80대 이상	31	100.0%	13.0%	3	9.7%	1.3%	1	3.2%	0.4%	31	13.0%
전체		236		98.7%	108		45.2%	53		22.2%	239	100.0 %

연령대 별로 어떤 디지털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교차표이다.

전연령층이 핸드폰은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연령대는 10대였다.

컴퓨터(노트북) 소지 여부 비율을 보면, 10대의 76.2%, 20대의 77.8%, 30대의 67.9%가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로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과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형태로 일상생활이 전환되면서 컴퓨터 소지가 불가피한 환경이기 때문일 것이라 유추된다. 한편 10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시 비대면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컴퓨터는 22.2%, 태블릿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7.6%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관 이용 주민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기인 컴퓨터 또는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는지

각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50~60대 주민의 경우에도 44.4%, 38.2%가 소지한다고 응답했으나 휴대폰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해당 연령층 주민의 교육의 욕구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2) 연령대 별 디지털 기기 활용 기능 교차표

<표-20> 교차분석-연령대 별 디지털 기기 활용 기능

전체(결측)=237(7)

구분		통화			영상시청			뉴스검색			문자, 카톡 등 채팅			메일전송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연령대	10대 이하	18	85.7%	7.6%	19	90.5%	8.0%	11	52.4%	4.6%	17	81.0%	7.2%	10	47.6%	4.2%
	20대	15	83.3%	6.3%	16	88.9%	6.8%	13	72.2%	5.5%	17	94.4%	7.2%	8	44.4%	3.4%
	30대	24	85.7%	10.1%	24	85.7%	10.1%	26	92.9%	11.0%	25	89.3%	10.5%	15	53.6%	6.3%
	40대	43	89.6%	18.1%	33	68.8%	13.9%	41	85.4%	17.3%	40	83.3%	16.9%	20	41.7%	8.4%
	50대	26	96.3%	11.0%	20	74.1%	8.4%	23	85.2%	9.7%	27	100.0%	11.4%	10	37.0%	4.2%
	60대	31	96.9%	13.1%	12	37.5%	5.1%	22	68.8%	9.3%	26	81.3%	11.0%	6	18.8%	2.5%
	70대	31	96.9%	13.1%	3	9.4%	1.3%	5	15.6%	2.1%	11	34.4%	4.6%	1	3.1%	0.4%
	80대 이상	30	96.8%	12.7%	5	16.1%	2.1%	0	0.0%	0.0%	8	25.8%	3.4%	0	0.0%	0.0%
전체		218		92.0%	132		55.7%	141		59.5%	171		72.2%	70		29.5%

구분		게임			사진			온라인 뱅킹			쇼핑			메모, 기록			전체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연령대	10대 이하	19	90.5%	8.0%	17	81.0%	7.2%	6	28.6%	2.5%	7	33.3%	3.0%	10	47.6%	4.2%	21	8.9%
	20대	10	55.6%	4.2%	16	88.9%	6.8%	13	72.2%	5.5%	12	66.7%	5.1%	14	77.8%	5.9%	18	7.6%
	30대	8	28.6%	3.4%	18	64.3%	7.6%	21	75.0%	8.9%	19	67.9%	8.0%	17	60.7%	7.2%	28	11.8%
	40대	18	37.5%	7.6%	33	68.8%	13.9%	33	68.8%	13.9%	33	68.8%	13.9%	22	45.8%	9.3%	48	20.3%
	50대	8	29.6%	3.4%	18	66.7%	7.6%	20	74.1%	8.4%	15	55.6%	6.3%	10	37.0%	4.2%	27	11.4%
	60대	3	9.4%	1.3%	16	50.0%	6.8%	9	28.1%	3.8%	7	21.9%	3.0%	8	25.0%	3.4%	32	13.5%
	70대	2	6.3%	0.8%	8	25.0%	3.4%	1	3.1%	0.4%	2	6.3%	0.8%	4	12.5%	1.7%	32	13.5%
	80대 이상	2	6.5%	0.8%	4	12.9%	1.7%	0	0.0%	0.0%	0	0.0%	0.0%	0	0.0%	0.0%	31	13.1%
전체		70		29.5%	130		54.9%	103		43.5%	95		40.1%	85		35.9%	237	100.0%

연령대 별로 디지털 기기의 기능을 활용하는 빈도와 퍼센트를 나타낸 교차표이다.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통화기능은 대부분이 활용하는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문자 등 채팅기능도 대부분의 연령대가 활용가능하다 응답했다.

10대는 메일전송, 온라인 뱅킹, 쇼핑, 메모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50%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30대는 50% 이상이 모든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40~50대도 메일전송과 게임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50% 이상이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60대부터는 디지털 기능 활용도가 비교적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0대는 다른 기능보다 통화, 채팅, 뉴스검색 기능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40~60대는 디지털 기기로 뉴스를 검색한다는 비율이 연령별로 92.9%, 85.4%, 85.2%, 68.8%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지류로 뉴스를 확인하던 것에서 이제는 60대까지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뉴스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 80대는 대부분 통화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낮았으나 일부 주민은 영상시청, 문자 등 채팅, 사진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디지털 기기 중 휴대폰은 대부분 소지하고 있으나 70,80대 주민들이 대부분 활용가능한 기능은 통화기능뿐이었다. 다른 기능의 경우에는 35%도 넘기지 못해 비교적 활용도가 낮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점차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주민들이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어 4회기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욕구를 확인하여 후속 모임을 이어가고자 한다.

3) 연령대 별 코로나19 정보를 접하는 매체 교차분석

<표-21> 교차분석-연령대 별 코로나19 정보를 접하는 매체

전체(결측)=229(15)

구분		TV 및 라디오			일간지 및 지역신문			인터넷 뉴스			인쇄, 홍보물			SNS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연령대	10대 이하	11	52.4%	4.8%	1	4.8%	0.4%	14	66.7%	6.1%	1	4.8%	0.4%	7	33.3%	3.1%
	20대	14	77.8%	6.1%	0	0.0%	0.0%	14	77.8%	6.1%	0	0.0%	0.0%	5	27.8%	2.2%
	30대	22	78.6%	9.6%	1	3.6%	0.4%	23	82.1%	10.0%	0	0.0%	0.0%	7	25.0%	3.1%
	40대	35	74.5%	15.3%	1	2.1%	0.4%	37	78.7%	16.2%	1	2.1%	0.4%	5	10.6%	2.2%
	50대	21	84.0%	9.2%	2	8.0%	0.9%	17	68.0%	7.4%	0	0.0%	0.0%	3	12.0%	1.3%
	60대	28	96.6%	12.2%	3	10.3%	1.3%	13	44.8%	5.7%	0	0.0%	0.0%	1	3.4%	0.4%
	70대	30	100.0%	13.1%	3	10.0%	1.3%	1	3.3%	0.4%	0	0.0%	0.0%	0	0.0%	0.0%
	80대 이상	30	96.8%	13.1%	3	9.7%	1.3%	0	0.0%	0.0%	0	0.0%	0.0%	2	6.5%	0.9%
전체		191		83.4%	14		6.1%	119		52.0%	2		0.9%	30		13.1%

구분		유튜브			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 지인 등			공공기관,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기타			전체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연령대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연령대	10대 이하	10	47.6%	4.4%	8	38.1%	3.5%	0	0.0%	0.0%	0	0.0%	0.0%	0	0.0%	0.0%	21	9.2%
	20대	6	33.3%	2.6%	8	44.4%	3.5%	2	11.1%	0.9%	0	0.0%	0.0%	0	0.0%	0.0%	18	7.9%
	30대	2	7.1%	0.9%	6	21.4%	2.6%	2	7.1%	0.9%	0	0.0%	0.0%	1	3.6%	0.4%	28	12.2%
	40대	8	17.0%	3.5%	16	34.0%	7.0%	1	2.1%	0.4%	0	0.0%	0.0%	0	0.0%	0.0%	47	20.5%
	50대	6	24.0%	2.6%	7	28.0%	3.1%	2	8.0%	0.9%	0	0.0%	0.0%	0	0.0%	0.0%	25	10.9%
	60대	5	17.2%	2.2%	6	20.7%	2.6%	1	3.4%	0.4%	0	0.0%	0.0%	0	0.0%	0.0%	29	12.7%
	70대	2	6.7%	0.9%	9	30.0%	3.9%	3	10.0%	1.3%	0	0.0%	0.0%	3	10.0%	1.3%	30	13.1%
	80대 이상	1	3.2%	0.4%	5	16.1%	2.2%	3	9.7%	1.3%	4	12.9%	1.7%	1	3.2%	0.4%	31	13.5%
전체		40		17.5%	65		28.4%	14		6.1%	4		1.7%	5		2.2%	229	100.0%

연령대 별로 코로나19 정보를 접하는 매체의 빈도와 퍼센트를 나타낸 교차표이다.

10대와 20대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TV 및 라디오, 유튜브, SNS를 통해 접한다고 응답했다. 10대, 20대 중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기지는 못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복지관에서 홍보물을 게시할 때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SNS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외에 연령대에는 적절하지 않겠다고 판단된다.

30,40,50대 주민의 경우에는 인터넷뉴스를 통해 코로나19 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8.6%, 74.5%, 84.0%로, 다른 매체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TV 및 라디오를 통해 접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30~50대 주민들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여 탐색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복지관에서도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의 홍보를 진행할 때 홈페이지, 기사 게시 등의 온라인 홍보를 활용할 수 있겠다.

60대 부터는 TV 및 라디오를 통해 코로나19 정보를 접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매체나 통로를 활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60대의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매체에 대한 비율은 낮았다.

2. 경제 영역

1) 가구원수 별 지출증가 항목 교차분석

<표-22> 교차분석-가구원수 별 지출 증가 항목

전체(결측)=215(29)

구분		식비			주거생활비			교육비			미용의류비			여가활동비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가구원수	1명	27	67.5%	12.6%	13	32.5%	6.0%	3	7.5%	1.4%	3	7.5%	1.4%	2	5.0%	0.9%
	2명	28	68.3%	13.0%	24	58.5%	11.2%	7	17.1%	3.3%	3	7.3%	1.4%	5	12.2%	2.3%
	3명	43	91.5%	20.0%	30	63.8%	14.0%	18	38.3%	8.4%	3	6.4%	1.4%	2	4.3%	0.9%
	4명	54	87.1%	25.1%	46	74.2%	21.4%	23	37.1%	10.7%	3	4.8%	1.4%	7	11.3%	3.3%
	5명 이상	21	84.0%	9.8%	16	64.0%	7.4%	7	28.0%	3.3%	0	0.0%	0.0%	3	12.0%	1.4%
전체		173		80.5%	129		60.0%	58		27.0%	12		5.6%	19		8.8%

구분		의료비			교통비			방역용품비			상가임대료			전체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가구원수	1명	26	65.0%	12.1%	5	12.5%	2.3%	8	20.0%	3.7%	1	2.5%	0.5%	40	18.6%
	2명	14	34.1%	6.5%	2	4.9%	0.9%	9	22.0%	4.2%	6	14.6%	2.8%	41	19.1%
	3명	11	23.4%	5.1%	4	8.5%	1.9%	11	23.4%	5.1%	5	10.6%	2.3%	47	21.9%
	4명	7	11.3%	3.3%	2	3.2%	0.9%	22	35.5%	10.2%	12	19.4%	5.6%	62	28.8%
	5명 이상	0	0.0%	0.0%	0	0.0%	0.0%	16	64.0%	7.4%	2	8.0%	0.9%	25	11.6%
전체		58		27.0%	13		6.0%	66		30.7%	26		12.1%	215	100.0%

가구원수 별로 지출이 증가한 항목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교차표이다.

분석결과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이후 식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3인 가구는 91.5%가, 4~5인 가구는 84% 이상이 식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주거생활비로, 2~5인 가구 에서 높은 비율로 주거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주거생활비보다 의료비가 증가했다(65.0%)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해당 욕구조사로는 코로나19 이후, 1인가구의 특성(어르신, 청년, 남성 등)이 무엇인지, 어떤 사유로 의료비가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1인가구의 건강 영역과 관련하여 어떤 대상에게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2) 가구원수 별 지출감소 항목 교차분석

<표-23> 교차분석-가구원수 별 지출 감소 항목

전체(결측)=206(38)

구분		식비			주거생활비			교육비			미용의류비			여가활동비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가구원수	1명	6	16.7%	2.9%	4	11.1%	1.9%	2	5.6%	1.0%	16	44.4%	7.8%	21	58.3%	10.2%
	2명	8	22.9%	3.9%	5	14.3%	2.4%	7	20.0%	3.4%	19	54.3%	9.2%	23	65.7%	11.2%
	3명	7	14.9%	3.4%	13	27.7%	6.3%	20	42.6%	9.7%	27	57.4%	13.1%	30	63.8%	14.6%
	4명	7	11.5%	3.4%	4	6.6%	1.9%	23	37.7%	11.2%	40	65.6%	19.4%	47	77.0%	22.8%
	5명 이상	4	14.8%	1.9%	3	11.1%	1.5%	11	40.7%	5.3%	17	63.0%	8.3%	21	77.8%	10.2%
전체		32		15.5%	29		14.1%	63		30.6%	119		57.8%	142		68.9%

구분		의료비			교통비			방역용품비			상가임대료			전체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가구원수	1명	3	8.3%	1.5%	19	52.8%	9.2%	1	2.8%	0.5%	0	0.0%	0.0%	36	17.5%
	2명	10	28.6%	4.9%	14	40.0%	6.8%	3	8.6%	1.5%	0	0.0%	0.0%	35	17.0%
	3명	10	21.3%	4.9%	17	36.2%	8.3%	2	4.3%	1.0%	0	0.0%	0.0%	47	22.8%
	4명	22	36.1%	10.7%	25	41.0%	12.1%	6	9.8%	2.9%	0	0.0%	0.0%	61	29.6%
	5명 이상	5	18.5%	2.4%	10	37.0%	4.9%	1	3.7%	0.5%	1	3.7%	0.5%	27	13.1%
전체		50		24.3%	85		41.3%	13		6.3%	1		0.5%	206	100.0%

가구원수 별로 지출이 감소한 항목에 따른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가구원수의 차이와 별개로, 모든 가구에서 여가활동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 외부활동을 자제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여가활동비 다음으로 감소한 항목은 교통비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할 때 1인가구의 사회활동, 이동, 외출이 감소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화두되고 있는 환경이기에 1인가구의 고립과 관련한 욕구를 확인하고 연령, 특성별로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3~5인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응답도 주를 이루었다. 3인가구는 42.6%, 4인가구는 37.7%, 5인 가구는 40.7%가 코로나19 이후 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지출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을 일부 중단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가정과 청소년이 자기 꿈을 지속해서 키워갈 수 있도록 관내/외 진로지원사업을 홍보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가정이 적극적으로 복지자원을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3) 보호제도 별 지출증가 항목 교차분석

<표-24>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지출 증가 항목

전체(결측)=213(31)

구분		식비			주거생활비			교육비			미용의류비			여가활동비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59	81.9%	27.7%	33	45.8%	15.5%	18	25.0%	8.5%	4	5.6%	1.9%	6	8.3%	2.8%
	잘 모르겠음	21	77.8%	9.9%	18	66.7%	8.5%	8	29.6%	3.8%	3	11.1%	1.4%	3	11.1%	1.4%
	해당 없음	93	81.6%	43.7%	77	67.5%	36.2%	33	28.9%	15.5%	4	3.5%	1.9%	10	8.8%	4.7%
전체		173		81.2%	128		60.1%	59		27.7%	11		5.2%	19		8.9%

구분		의료비			교통비			방역용품비			상가임대료			전체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29	40.3%	13.6%	6	8.3%	2.8%	15	20.8%	7.0%	4	5.6%	1.9%	72	33.8%
	잘 모르겠음	5	18.5%	2.3%	5	18.5%	2.3%	4	14.8%	1.9%	5	18.5%	2.3%	27	12.7%
	해당 없음	23	20.2%	10.8%	2	1.8%	0.9%	47	41.2%	22.1%	17	14.9%	8.0%	114	53.5%
전체		57		26.8%	13		6.1%	66		31.0%	26		12.2%	213	100.0%

보호제도 해당 여부 별로 지출증가항목에 따른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보호제도(수급, 조건부수급, 차상위 등)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식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수급, 차상위 주민은 81.9%, 보호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은 81.6%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는 0.3% 차이가 나타났다. 당초 수급, 차상위 주민의 경우에는 복지관 무료급식, 영양식 등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며 복지관의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에 식비 지출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수급, 차상위 주민 중 무료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일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꿈지원센터, 일상생활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참여하는 주민이 있어 무료급식사업 주민으로만 국한되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수급, 차상위 주민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한 지출증가항목은 의료비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의 변화가 생겼거나 건강에 대한 염려증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이 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보호제도 안에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자부담 비용이 해당되지 않는 주민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호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은 지출증가항목 중 방역용품비 증가가 세 번째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 차상위 주민은 20.8%로 다른 주민에 비해 방역용품비 지출이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 주민은 “복지관에서 방역용품을 챙겨주니 걱정이 없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비교적 방역용품비 지출의 증가가 완화된 이유는 공공/민관기관에서 정기적, 간헐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적시에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4) 보호제도 별 지출감소 항목 교차분석

<표-25>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지출 감소 항목

전체(결측)=204(40)

구분		식비			주거생활비			교육비			미용의류비			여가활동비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11	16.7%	5.4%	10	15.2%	4.9%	11	16.7%	5.4%	35	53.0%	17.2%	41	62.1%	20.1%
	잘 모르겠음	4	15.4%	2.0%	6	23.1%	2.9%	12	46.2%	5.9%	16	61.5%	7.8%	16	61.5%	7.8%
	해당 없음	16	14.3%	7.8%	13	11.6%	6.4%	39	34.8%	19.1%	67	59.8%	32.8%	83	74.1%	40.7%
전체		31		15.2%	29		14.2%	62		30.4%	118		57.8%	140		68.6%

구분		의료비			교통비			방역용품비			상가임대료			전체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13	19.7%	6.4%	27	40.9%	13.2%	5	7.6%	2.5%	0	0.0%	0.0%	66	32.4%
	잘 모르겠음	11	42.3%	5.4%	10	38.5%	4.9%	0	0.0%	0.0%	0	0.0%	0.0%	26	12.7%
	해당 없음	26	23.2%	12.7%	47	42.0%	23.0%	8	7.1%	3.9%	1	0.9%	0.5%	112	54.9%
전체		50		24.5%	84		41.2%	13		6.4%	1		0.5%	204	100.0%

보호제도 해당 여부 별로 지출감소항목에 따른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보호제도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여가활동비, 미용의류비, 교통비 순으로 지출이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여가활동비, 미용의류비는 필수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시에 긴축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교통비가 감소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듦에 따른 지출감소라고 유추된다.

5) 주소득자의 직업 별 지출증가 항목 교차분석

<표-26> 교차분석-주소득자의 직업 별 지출 증가 항목

전체(결측)=201(43)

구분		식비			주거생활비			교육비			미용의류비			여가활동비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주소득자 직업	자영업	37	74.0%	18.4%	38	76.0%	18.9%	9	18.0%	4.5%	2	4.0%	1.0%	2	4.0%	1.0%
	정규직	52	92.9%	25.9%	36	64.3%	17.9%	23	41.1%	11.4%	4	7.1%	2.0%	10	17.9%	5.0%
	계약직(1년이상)	15	88.2%	7.5%	14	82.4%	7.0%	8	47.1%	4.0%	2	11.8%	1.0%	0	0.0%	0.0%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15	83.3%	7.5%	14	77.8%	7.0%	9	50.0%	4.5%	1	5.6%	0.5%	2	11.1%	1.0%
	무직	41	68.3%	20.4%	17	28.3%	8.5%	7	11.7%	3.5%	3	5.0%	1.5%	4	6.7%	2.0%
전체		160		79.6%	119		59.2%	56		27.9%	12		6.0%	18		9.0%

구분		의료비			교통비			방역용품비			상가임대료			전체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주소득자 직업	자영업	7	14.0%	3.5%	1	2.0%	0.5%	19	38.0%	9.5%	21	42.0%	10.4%	50	24.9%
	정규직	7	12.5%	3.5%	3	5.4%	1.5%	23	41.1%	11.4%	2	3.6%	1.0%	56	27.9%
	계약직(1년이상)	2	11.8%	1.0%	0	0.0%	0.0%	5	29.4%	2.5%	1	5.9%	0.5%	17	8.5%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2	11.1%	1.0%	1	5.6%	0.5%	6	33.3%	3.0%	1	5.6%	0.5%	18	9.0%
	무직	34	56.7%	16.9%	7	11.7%	3.5%	9	15.0%	4.5%	0	0.0%	0.0%	60	29.9%
전체		52		25.9%	12		6.0%	62		30.8%	25		12.4%	201	100.0%

주소득자의 직업 별 지출 증가 항목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주소득자의 직업에 관계없이 가장 비율이 높은 지출증가항목은 식비로 나타났다. 또한 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에서는 주거생활비가 그 다음으로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주소득자가 무직인 가정의 경우에는 식비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선 교차표에서 수급, 차상위 주민의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결과와 연관되어 있겠다고 유추된다.

6) 주소득자의 직업 별 지출감소 항목 교차분석

<표-27> 교차분석-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전체(결측)=194(50)

구분		식비			주거생활비			교육비			미용의류비			여가활동비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주소득자 직업	자영업	10	18.9%	5.2%	4	7.5%	2.1%	17	32.1%	8.8%	34	64.2%	17.5%	42	79.2%	21.6%
	정규직	3	5.5%	1.5%	7	12.7%	3.6%	19	34.5%	9.8%	36	65.5%	18.6%	42	76.4%	21.6%
	계약직(1년이상)	6	35.3%	3.1%	7	41.2%	3.6%	9	52.9%	4.6%	8	47.1%	4.1%	8	47.1%	4.1%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3	16.7%	1.5%	3	16.7%	1.5%	9	50.0%	4.6%	11	61.1%	5.7%	12	66.7%	6.2%
	무직	8	15.7%	4.1%	7	13.7%	3.6%	8	15.7%	4.1%	23	45.1%	11.9%	28	54.9%	14.4%
전체		30		15.5%	28		14.4%	62		32.0%	112		57.7%	132		68.0%

구분		의료비			교통비			방역용품비			상가임대료			전체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직업 중 %	전체 중 %	빈도	전체 중 %
주소득자의 직업	자영업	9	17.0%	4.6%	25	47.2%	12.9%	2	3.8%	1.0%	0	0.0%	0.0%	53	27.3%
	정규직	22	40.0%	11.3%	20	36.4%	10.3%	5	9.1%	2.6%	1	1.8%	0.5%	55	28.4%
	계약직(1년이상)	3	17.6%	1.5%	7	41.2%	3.6%	1	5.9%	0.5%	0	0.0%	0.0%	17	8.8%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5	27.8%	2.6%	6	33.3%	3.1%	1	5.6%	0.5%	0	0.0%	0.0%	18	9.3%
	무직	4	7.8%	2.1%	21	41.2%	10.8%	4	7.8%	2.1%	0	0.0%	0.0%	51	26.3%
전체		43		22.2%	79		40.7%	13		6.7%	1		0.5%	194	100.0%

주소득자의 직업에 따라 지출감소항목의 빈도와 비율의 차이를 나타낸 교차표이다.

자영업, 정규직, 일용직/아르바이트, 무직인 가정은 여가활동비와 미용의류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소비를 자제한 것으로 유추된다.

더불어 계약직과 일용직/아르바이트인 가정은 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50% 이상이 응답했다. 정규직이나 자영업보다 수입이 안정되지 않은 직업군이기에 교육비도 절감하는 것으로 유추되며, 부수적인 지출항목을 절감하는 것과 더불어 자녀의 교육 혹은 소득자 자신의 자기개발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포기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교육과 관련한 자원(장학사업, 청년구직지원, 청년 취업지원 등 정책 등)에 대해 파악하여 관련 욕구가 있는 주민을 만났을 때 안내할 수 있어야 하겠다.

3. 고용 영역

1) 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직업 교차분석

<표-28>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직업

전체(결측)=231(13)

구분		자영업			정규직			계약직(1년이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무직			기타			전체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4	4.8%	1.7%	6	7.2%	2.6%	5	6.0%	2.2%	6	7.2%	2.6%	55	66.3%	23.8%	7	8.4%	3.0%	83	100.0%	35.9%
	잘 모르겠음	9	32.1%	3.9%	6	21.4%	2.6%	3	10.7%	1.3%	5	17.9%	2.2%	5	17.9%	2.2%	0	0.0%	0.0%	28	100.0%	12.1%
	해당 없음	41	34.2%	17.7%	44	36.7%	19.0%	9	7.5%	3.9%	8	6.7%	3.5%	14	11.7%	6.1%	4	3.3%	1.7%	120	100.0%	51.9%
전체		54	23.4%	23.4%	56	24.2%	24.2%	17	7.4%	7.4%	19	8.2%	8.2%	74	32.0%	32.0%	11	4.8%	4.8%	231	100.0%	100.0%

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직업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수급, 차상위와 같이 보호제도 안에 있는 주민 중 66.3%의 주소득자가 무직이라고 응답했으며 7.2%는 정규직으로, 7.2%는 일용직/임시직으로, 6%는 계약직으로, 4.8%는 자영업으로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주소득자 중 34.2%는 자영업, 36.7% 정규직, 7.5%는 계약직, 6.7%는 일용직/임시직으로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1.7%는 주소득자가 무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해당 가정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한 확인과 접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된다. 사례관리 관점으로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하고 해당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욕구를 사정하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떤 보호제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주민은 총 2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관에서 만나는 주민이 스스로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

2) 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고용형태 변화 교차분석

<표-29>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고용형태 변화

전체(결측)=226(18)

구분		변동없다			무급휴직			유급휴직			실직(폐업)			기타			전체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64	80.0%	28.3%	5	6.3%	2.2%	0	0.0%	0.0%	3	3.8%	1.3%	8	10.0%	3.5%	80	100.0%	35.4%
	잘 모르겠음	17	65.4%	7.5%	6	23.1%	2.7%	0	0.0%	0.0%	1	3.8%	0.4%	2	7.7%	0.9%	26	100.0%	11.5%
	해당 없음	88	73.3%	38.9%	8	6.7%	3.5%	6	5.0%	2.7%	9	7.5%	4.0%	9	7.5%	4.0%	120	100.0%	53.1%
전체		169	74.8%	74.8%	19	8.4%	8.4%	6	2.7%	2.7%	13	5.8%	5.8%	19	8.4%	8.4%	226	100.0%	100.0%

보호제도 별로 코로나19 이후 주소득자의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수급, 차상위 등 보호제도 안에 있는 주민들은 고용형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해당 집단의 80.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또한 보호제도 해당이 없는 주민의 경우에도 73.3%가 변동 없다고 응답했다.

3) 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근무형태 변화 교차분석

<표-30> 교차분석-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전체(결측)=226(18)

구분		변동없다			휴업일수증가			재택근무증가			교대근무증가			근무(영업)시간의 증가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62	76.5%	27.4%	4	4.9%	1.8%	4	4.9%	1.8%	0	0.0%	0.0%	1	1.2%	0.4%
	잘 모르겠음	11	42.3%	4.9%	3	11.5%	1.3%	0	0.0%	0.0%	1	3.8%	0.4%	2	7.7%	0.9%
	해당 없음	61	51.3%	27.0%	9	7.6%	4.0%	15	12.6%	6.6%	0	0.0%	0.0%	5	4.2%	2.2%
전체		134	59.3%	59.3%	16	7.1%	7.1%	19	8.4%	8.4%	1	0.4%	0.4%	8	3.5%	3.5%

구분		근무(영업)시간의 감소			기타			전체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4	4.9%	1.8%	6	7.4%	2.7%	81	100.0%	35.8%
	잘 모르겠음	8	30.8%	3.5%	1	3.8%	0.4%	26	100.0%	11.5%
	해당 없음	26	21.8%	11.5%	3	2.5%	1.3%	119	100.0%	52.7%
전체		38	16.8%	16.8%	10	4.4%	4.4%	226	100.0%	100.0%

보호제도 구분 별로 코로나19 이후 주소득자의 근무형태 변화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제도의 보호를 받는 집단도,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도, 해당 없는 집단도 근무형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수급, 차상위 주민들은 76.5%가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보호제도에 해당 없다고 응답한 주민중 21.8%는 근무(영업)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12.6%는 재택근무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또는 무직일 것으로 유추되며 근무시간 감소, 재택 근무 증가 등의 경우에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일하는 직업군일 것으로 유추된다.

4) 보호제도 별 소득변화 교차분석

<표-31>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소득변화

전체(걸측)=235(9)

구분		매우 많이 감소			조금 감소			변동 없음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11	12.9%	4.7%	11	12.9%	4.7%	60	70.6%	25.5%
	잘 모르겠음	12	40.0%	5.1%	11	36.7%	4.7%	7	23.3%	3.0%
	해당 없음	36	30.0%	15.3%	30	25.0%	12.8%	45	37.5%	19.1%
전체		59	25.1%	25.1%	52	22.1%	22.1%	112	47.7%	47.7%

구분		조금 증가			매우 많이 증가			전체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2	2.4%	0.9%	1	1.2%	0.4%	85	100.0%	36.2%
	잘 모르겠음	0	0.0%	0.0%	0	0.0%	0.0%	30	100.0%	12.8%
	해당 없음	4	3.3%	1.7%	5	4.2%	2.1%	120	100.0%	51.1%
전체		6	2.6%	2.6%	6	2.6%	2.6%	235	100.0%	100.0%

보호제도 별 주소득자의 소득변화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수급, 차상위 등으로 보호제도에 해당되는 주민은 소득에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문항과 더불어 무직인 경우가 많기에 근무형태나 고용형태의 변화가 없어 소득의 변화도 없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보호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주민의 55.0%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45%는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선 조사문항에서 보호제도에 해당 없는 주민 중 계약직, 일용직/아르바이트, 자영업에 해당되는 주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근로의 변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보호제도 안에 있는 주민들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한편, 자영업,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하는 주민들은 코로나19의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을 주대상으로 만나왔기 때문에 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 주민을 많이 만나고 해당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발맞추어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자영업,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주민을 만나는 주민만나기가 활발히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겠다.

4. 사회적 관계 영역

1) 성별 가족과의 시간 변화 교차분석

<표-32> 교차분석-성별 가족과의 시간 변화

전체(결측)=242(2)

구분		변동없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전체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성별	남성	41	51.2%	16.9%	16	20.0%	6.6%	23	28.7%	9.5%	80	100.0%	33.1%
	여성	46	28.4%	19.0%	35	21.6%	14.5%	81	50.0%	33.5%	162	100.0%	66.9%
전체		87	36.0%	36.0%	51	21.1%	21.1%	104	43.0%	43.0%	242	100.0%	100.0%

성별에 따라 가족과의 시간 변화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족과의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줄거나 변동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나타났다. 이에 남성보다 여성이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소득자가 남성이고 주양육자가 여성인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이 느끼는 가족과의 시간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2) 성별 가족 간 갈등 변화 교차분석

<표-33> 교차분석-성별 가족 간 갈등 변화

전체(결측)=241(3)

구분		변동없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전체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성별	남성	63	79.7%	26.1%	0	0.0%	0.0%	16	20.3%	6.6%	79	100.0%	32.8%
	여성	101	62.3%	41.9%	10	6.2%	4.1%	51	31.5%	21.2%	162	100.0%	67.2%
전체		164	68.0%	68.0%	10	4.1%	4.1%	67	27.8%	27.8%	241	100.0%	100.0%

성별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변화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앞서 여성은 가족과의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였으나 그에 비해 가족 간 관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적게 나타났다. 여성의 31.5%가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났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62.3%는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앞서 가족과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비율(28.7%, 23명)과 가족 간 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20.3%, 16명)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간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를 통해 변동이 없다고 느끼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성별 이웃과의 시간 변화 교차분석

<표-34> 교차분석-성별 이웃과의 시간 변화

전체(결측)=242(2)

구분		변동없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전체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성별	남성	18	22.2%	7.4%	59	72.8%	24.4%	4	4.9%	1.7%	81	100.0%	33.5%
	여성	21	13.0%	8.7%	138	85.7%	57.0%	2	1.2%	0.8%	161	100.0%	66.5%
전체		39	16.1%	16.1%	197	81.4%	81.4%	6	2.5%	2.5%	242	100.0%	100.0%

성별에 따라 이웃과의 시간 변화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웃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72.8%가, 여성은 85.7%가 이웃과의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인근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운동을 하는 주민이 줄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웃의 집에 방문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일상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웃과의 시간이 줄었을 것이라 유추된다.

4) 성별 이웃 간 갈등 변화 교차분석

<표-35> 교차분석-성별 이웃 간 갈등 변화

전체(결측)=243(1)

구분		변동없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전체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빈도	성별 중 %	전체 중 %
성별	남성	44	54.3%	18.1%	11	13.6%	4.5%	26	32.1%	10.7%	81	100.0%	33.3%
	여성	73	45.1%	30.0%	34	21.0%	14.0%	55	34.0%	22.6%	162	100.0%	66.7%
전체		117	48.1%	48.1%	45	18.5%	18.5%	81	33.3%	33.3%	243	100.0%	100.0%

성별에 따라 이웃 간 갈등 변화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각각 54.3%, 45.1%로 응답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갈등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가 13.6%, 21%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갈등도 줄었다고 응답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가 각각 32.1%, 34%라고 응답했다. 이는 가족 간 갈등이 늘었다고 느끼는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앞선 문항에서도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데에 비해 갈등이 늘었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있어 어떤 이유로 주민 간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5) 가구원수 별 가족과의 시간 변화 교차분석

<표-36> 교차분석-가구원수 별 가족과의 시간 변화

전체(결측)=241(3)

구분		변동없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전체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가구원수	1명	28	51.9%	11.6%	25	46.3%	10.3%	1	1.9%	0.4%	54	100.0%	22.3%
	2명	22	45.8%	9.1%	9	18.8%	3.7%	17	35.4%	7.0%	48	100.0%	19.8%
	3명	15	30.6%	6.2%	9	18.4%	3.7%	25	51.0%	10.3%	49	100.0%	20.2%
	4명	15	23.4%	6.2%	6	9.4%	2.5%	43	67.2%	17.8%	64	100.0%	26.4%
	5명 이상	7	25.9%	2.9%	2	7.4%	0.8%	18	66.7%	7.4%	27	100.0%	11.2%
전체		87	36.0%	36.0%	51	21.1%	21.1%	104	43.0%	43.0%	242	100.0%	100.0%

코로나19 이후 가구원수에 따른 가족과의 시간 변화 대한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1인가구 중 '가족과의 시간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다. 혼자 살기에 가족과의 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 유추된다. 또한 '가족과의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나타나 코로나19로 가족 간 왕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는 가족과의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1.0%, 67.2%, 66.7%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화(비대면 수업 증가, 휴직, 재택근무 등)함에 따른 결과라고 유추된다.

6) 가구원수 별 가족 간 갈등 변화 교차분석

<표-37> 교차분석-가구원수 별 가족 간 갈등 변화

전체(결측)=241(3)

구분		변동없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전체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빈도	가구원수 중 %	전체 중 %
가구원수	1명	47	87.0%	19.5%	3	5.6%	1.2%	4	7.4%	1.7%	54	100.0%	22.4%
	2명	36	75.0%	14.9%	2	4.2%	0.8%	10	20.8%	4.1%	48	100.0%	19.9%
	3명	28	58.3%	11.6%	1	2.1%	0.4%	19	39.6%	7.9%	48	100.0%	19.9%
	4명	40	62.5%	16.6%	1	1.6%	0.4%	23	35.9%	9.5%	64	100.0%	26.6%
	5명 이상	14	51.9%	5.8%	2	7.4%	0.8%	11	40.7%	4.6%	27	100.0%	11.2%
전체		165	68.5%	68.5%	9	3.7%	3.7%	67	27.8%	27.8%	241	100.0%	100.0%

코로나19 이후 가구원수에 따른 가족 간 갈등 변화 대한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1인가구와 2인가구는 각각 87%, 75%가 변동이 없다고 응답했다.

3~5인가구도 변동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지만 갈등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1~2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5인가구 중 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9.6%, 35.9%, 40.7로 1~2인 가구에 비해 높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례한 것이라고 유추된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3~5인 가구의 가족 갈등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족 내 갈등, 의사소통 가족의 심리건강을 주제로 다루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7) 보호제도 별 이웃과의 시간 변화 교차분석

<표-38> 교차분석-보호제도 별 이웃과의 시간 변화

전체결측)=240(4)

구분		변동없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전체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25	28.1%	10.4%	62	69.7%	25.8%	2	2.2%	0.8%	89	100.0%	37.1%
	잘 모르겠음	5	16.7%	2.1%	24	80.0%	10.0%	1	3.3%	0.4%	30	100.0%	12.5%
	해당 없음	8	6.6%	3.3%	110	90.9%	45.8%	3	2.5%	1.3%	121	100.0%	50.4%
전체		38	15.8%	15.8%	196	81.7%	81.7%	6	2.5%	2.5%	240	100.0%	100.0%

코로나19 이후 보호제도 여부에 따른 이웃과의 시간 변화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수급,차상위/ 잘모르겠음/ 해당없음 집단 모두 이웃과의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호제도에 해당이 없는 주민은 90.9%가 줄었다고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해당 조사가 실시된 시기는 코로나19 2단계로 사적모임이 제한되고 복지관 운영도 제한(경로식당 배달로 운영)되고 있는 시기로, 주민들도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이웃과의 접촉을 자제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수급, 차상위 주민의 경우에는 이웃과의 시간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단지 주민의 경우에는 동네에서 오며가며 주민과 만남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8) 보호제도 별 이웃 간 갈등 변화 교차분석

<표-39> 교차분석-연령대 별 소지한 디지털 기기

전체(결측)=241(3)

구분		변동없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전체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빈도	보호제도 중 %	전체 중 %
보호제도	수급, 차상위	44	48.9%	18.3%	14	15.6%	5.8%	32	35.6%	13.3%	90	100.0%	37.3%
	잘 모르겠음	15	50.0%	6.2%	8	26.7%	3.3%	7	23.3%	2.9%	30	100.0%	12.4%
	해당 없음	57	47.1%	23.7%	23	19.0%	9.5%	41	33.9%	17.0%	121	100.0%	50.2%
전체		116	48.1%	48.1%	45	18.7%	18.7%	80	33.2%	33.2%	241	100.0%	100.0%

코로나19 이후 보호제도에 따른 이웃 간 갈등 변화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보호제도 여부에 따른 변화차이는 없었으며 수급,차상위/ 잘모르겠음/ 해당없음 집단 모두 이웃 간 갈등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5.6%, 23.63%, 33.9%로 유사한 수준으로 보였다.

이웃과의 시간이 줄거나 변동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인 반면, 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급,차상위 집단과 해당사항이 없는 집단 모두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사유로 갈등이 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듣고 지역의 역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본문-Ⅳ.

집단간 유의미한 분석

Ⅳ. 집단간 유의미한 분석

1. 주민-소상공인 집단간 분석

<표-40> 평균분석-주민/소상공인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수입 감소, 부채 등)	주민	194	3.04	.013	243(1)
	소상공인	49	3.82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주민	192	2.72	.008	239(5)
	소상공인	47	3.34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경조사,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등)	주민	194	3.57	.046	243(1)
	소상공인	49	3.92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주민	192	2.86	.004	241(3)
	소상공인	49	3.47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주민	193	2.42	.000	243(1)
	소상공인	50	3.34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주민 2.72, 소상공인 3.34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또한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주민 3.57, 소상공인 3.92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환경 변화가 주민에 비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또한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주민 2.86, 소상공인 3.47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또한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주민 2.42, 소상공인 3.34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큰 집단인 소상공인이 영업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제한에 민감할 것이며,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표-41> 평균분석-주민/소상공인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주민	194	2.26	.024	244(0)
	소상공인	50	2.78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주민	194	3.17	.000	243(1)
	소상공인	49	4.22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2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이 느끼는 식생활 변화가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해 주민 3.17, 소상공인 4.22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업무 종료 이후 외식을 할 수 있는 곳에 제한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2. 20~50대-60대 이상 집단간 분석

<표-42> 평균분석-20~59세/60세 이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20대~50대	123	3.43	.041	222 (1)
	60대 이상	99	3.06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20대~50대	123	2.88	.001	221 (2)
	60대 이상	98	2.27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20대~50대	121	3.33	.000	218 (5)
	60대 이상	97	2.12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20대~50대	123	3.02	.000	223 (0)
	60대 이상	100	2.21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20대~50대	123	2.48	.015	223 (0)
	60대 이상	100	2.06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20대~50대	122	2.83	.001	221 (2)
	60대 이상	99	2.21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20대~50대	119	1.98	.013	215 (8)
	60대 이상	96	1.59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20대~50대	122	3.02	.000	222 (1)
	60대 이상	100	2.19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 중 8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20대~50대 집단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6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20대~50대 집단 3.33, 60대 이상 집단 2.12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또한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20대~50대 집단 3.02, 60대 이상 집단 2.19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20~50대 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43> 평균분석-20~59세/60세 이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20대~50대	123	2.63	.000	223(0)
	60대 이상	100	2.08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20대~50대	123	3.15	.002	223(0)
	60대 이상	100	2.59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20대~50대	123	3.14	.000	222(1)
	60대 이상	99	1.71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20대~50대	123	3.76	.000	222(1)
	60대 이상	99	2.93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20대~50대	123	2.29	.005	223(0)
	60대 이상	100	2.75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20대~50대	123	3.23	.000	221(2)
	60대 이상	98	2.06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20대~50대	123	3.14	.000	222(1)
	60대 이상	99	2.12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7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20대~50대 집단이 느끼는 식생활 변화가 6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문항에 대해 20대~50대 집단 3.14, 60대 이상 집단 1.71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으며,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해 20대~50대 집단 3.76, 60대 이상 집단 2.93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외식 및 배달음식 등 식생활 변화에 대해 60대 이상 집단에 비해 20대~50대 집단이 민감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거가족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표-44> 평균분석-20~59세/60세 이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체온측정 등)	20대~50대	88	3.98	.000	165(58)
	60대 이상	77	4.47		
복지관은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항균필름, 정기소독 등)	20대~50대	88	3.93	.000	164(59)
	60대 이상	76	4.39		
복지관은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0대~50대	88	3.59	.002	164(59)
	60대 이상	76	4.05		
복지관은 위생(방역)용품을 적절히 구비(지급)하고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20대~50대	88	3.78	.014	164(59)
	60대 이상	76	4.16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20대~50대	88	3.94	.001	164(59)
	60대 이상	76	4.34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20대~50대 집단이 느끼는 복지관 방역에 대한 신뢰성이 6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문항에 대해 20대~50대 집단 3.98, 60대 이상 집단 4.47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복지관 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60대 이상 연령대의 복지관 이용이 잦으므로 발열체크 장비 등을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 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간 분석

<표-45> 평균분석-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우울, 불안 등)	65세 이상	79	2.78	.040	243 (1)
	65세 미만	164	3.20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65세 이상	79	2.89	.015	243 (1)
	65세 미만	164	3.35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65세 이상	79	2.03	.000	241 (3)
	65세 미만	162	2.81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65세 이상	79	2.01	.000	239 (5)
	65세 미만	160	3.26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65세 이상	79	2.01	.000	244 (0)
	65세 미만	165	2.96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65세 이상	79	1.94	.007	244 (0)
	65세 미만	165	2.41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65세 이상	78	2.09	.000	242 (2)
	65세 미만	164	2.74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65세 이상	78	1.56	.029	236 (8)
	65세 미만	158	1.91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65세 이상	79	1.99	.000	243 (1)
	65세 미만	164	2.91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 집단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65세 이상 집단 2.01, 65세 미만 집단 3.26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또한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65세 이상 집단 1.99, 65세 미만 집단 2.91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근로활동연령인 65세 미만 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지원정책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46> 평균분석-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65세 이상	72	2.38	.000	235(9)
	65세 미만	163	3.39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65세 이상	75	2.83	.024	235(9)
	65세 미만	160	2.33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65세 이상	74	1.76	.006	235(9)
	65세 미만	161	2.19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문항 중 3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문항에 대해 65세 이상 집단 2.38, 65세 미만 집단 3.39의 응답 평균이 나타났다. 65세 이상 집단의 경우 자녀들이 출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정에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47> 평균분석-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65세 이상	79	1.99	.001	244(0)
	65세 미만	165	2.55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65세 이상	79	2.51	.001	244(0)
	65세 미만	165	3.15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65세 이상	78	1.56	.000	243(1)
	65세 미만	165	2.97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79	2.80	.000	243(1)
	65세 미만	164	3.66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79	2.87	.001	244(0)
	65세 미만	165	2.29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65세 이상	78	2.01	.000	242(2)
	65세 미만	164	3.09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65세 이상	79	2.05	.000	243(1)
	65세 미만	164	3.07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7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 집단이 느끼는 식생활 변화가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해 65세 이상 집단 2.80, 65세 미만 집단 3.66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65세 이상 집단에 비해 65세 미만 집단이 동거가족 또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가족 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48> 평균분석-65세 이상/65세 미만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79	3.16	.005	244(0)
	65세 미만	165	3.70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79	2.41	.000	244(0)
	65세 미만	165	3.03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78	3.31	.034	243(1)
	65세 미만	165	3.69		
체중이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79	2.57	.020	242(2)
	65세 미만	163	2.18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외부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해 65세 이상 집단 3.16, 65세 미만 집단 3.70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근로활동연령 집단의 외부 운동량 감소는 퇴근 후 시간대에 운동 시설의 인구 과밀에 따라 시설 이용이 제한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4. 정규직-일용직 집단간 분석

<표-49> 평균분석-정규직/일용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정규직	29	3.21	.018	50 (0)
	일용직	21	3.90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정규직 3.21, 일용직 3.90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감소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50> 평균분석-정규직/일용직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정규직	28	2.86	.010	49 (1)
	일용직	21	3.71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 문항에 대해 정규직 2.86, 일용직 3.71의 응답평균값이 나타났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낮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인 관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 방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한다.

<표-51> 평균분석-정규직/일용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정규직	29	3.62	.012	50 (0)
	일용직	21	2.67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문항에 대해 정규직 3.62, 일용직 2.67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코로나-19로 외식의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자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일용직 집단의 경우 불안한 고용 상황 속 가계비 절감을 위해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5. 보호제도권-정부 보호 해당 없는 집단간 분석

<표-52> 평균분석-보호제도권/정부 보호 해당 없는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보호제도권	88	2.42	.000	206 (5)
	해당 없음	118	3.21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보호제도권	90	2.39	.031	211 (0)
	해당 없음	121	2.80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보호제도권	89	2.27	.031	209 (2)
	해당 없음	120	2.68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 중 3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일반 집단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보호제도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해 보호제도권 집단 2.42, 일반 집단 3.21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보호제도권 집단의 경우 근로능력과 연관이 있으므로 일반 집단에 비해 업무 환경 변화의 민감도가 낮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53> 평균분석-보호제도권/정부 보호 해당 없는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보호제도권	90	2.10	.008	211(0)
	해당 없음	121	2.55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보호제도권	89	2.11	.001	210(1)
	해당 없음	121	2.78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보호제도권	90	2.88	.000	211(0)
	해당 없음	121	3.78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보호제도권	88	2.61	.034	208(3)
	해당 없음	120	2.23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보호제도권	90	2.90	.000	211(0)
	해당 없음	121	2.24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보호제도권	89	2.20	.000	210(1)
	해당 없음	121	3.10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보호제도권	90	2.26	.000	211(0)
	해당 없음	121	3.08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7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일반 집단이 느끼는 식생활 변화가 보호제도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해 보호제도권 집단 2.88, 일반 집단 3.78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일반 집단의 경우 보호제도권 집단에 비해 높은 근로 수입, 낮은 연령대, 많은 부양가족 수 등의 사유로 코로나-19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는 일반 집단의 경우 정기성으로 보호를 받는 보호제도권 집단에 비해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을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54> 평균분석-보호제도권/정부 보호 해당 없는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보호제도권	83	3.46	.031	165 (46)
	해당 없음	82	3.06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체온측정 등).	보호제도권	82	4.57	.000	164 (47)
	해당 없음	82	3.99		
복지관은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항균필름, 정기소독 등)	보호제도권	81	4.48	.000	163 (48)
	해당 없음	82	3.93		
복지관은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보호제도권	81	4.09	.001	163 (48)
	해당 없음	82	3.61		
복지관은 위생(방역)용품을 적절히 구비(지급)하고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보호제도권	81	4.19	.026	163 (48)
	해당 없음	82	3.85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보호제도권	81	4.46	.000	163 (48)
	해당 없음	82	3.96		
전체	보호제도권	83	4.155	.000	165 (46)
	해당 없음	82	3.734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문항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전체적으로 보호제도권 집단의 응답 평균값이 일반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제도권 집단의 복지관 이용 빈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6. 1인 가구-2인 이상 가구 집단간 분석

<표-55> 평균분석-1인 가구/2인 이상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1인 가구	50	2.24	.000	233 (9)
	2인이상 가구	183	3.29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1인 가구	54	3.57	.024	235 (7)
	2인이상 가구	181	3.14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1인 가구	55	2.91	.025	234 (8)
	2인이상 가구	179	2.37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1인 가구	52	1.69	.007	234 (8)
	2인이상 가구	182	2.16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기’ 문항에 대해 1인가구 2.24, 2인 이상 가구 3.29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고,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 문항에 대해 1인가구 3.57, 2인 이상 가구 3.14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동거가족의 부재로 대인관계를 위해 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소통을 위한 매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7. 근로소득 발생-미발생 집단간 분석

<표-56> 평균분석-근로소득 발생/근로소득 미발생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수입이 있는 직업	98	2.78	.000	233 (0)
	수입이 없는 직업	135	2.13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수입이 있는 직업	98	3.01	.000	232 (1)
	수입이 없는 직업	134	2.18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수입이 있는 직업	97	3.91	.000	232 (1)
	수입이 없는 직업	135	3.00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수입이 있는 직업	97	3.01	.006	231 (2)
	수입이 없는 직업	134	2.55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 발생 집단이 느끼는 식생활 변화가 학생, 주부, 무직 등 수입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해 근로 소득 발생 집단 3.91의 응답 평균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등으로 직장 내 회식 또는 개인적인 식사 약속의 기회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8. 2~3인 가구-4인 이상 가구 집단간 분석

<표-57> 평균분석-2~3인 가구/4인 이상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2~3인가구	97	2.22	.002	188(0)
	4인가구 이상	91	2.76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2~3인가구	97	2.61	.020	188(0)
	4인가구 이상	91	3.07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2~3인가구	97	3.24	.001	187(1)
	4인가구 이상	90	3.88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2~3인가구	97	2.79	.004	187(1)
	4인가구 이상	90	3.29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2~3인가구	97	2.75	.003	187(1)
	4인가구 이상	90	3.30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4인 이상 가구가 느끼는 식생활 변화가 2~3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해 2~3인 가구 3.24, 4인 이상 가구 3.88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응답 평균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9. 종교있음-없음 집단간 분석

<표-58> 평균분석-종교 있음/종교 없음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종교 있음	134	3.10	.000	232 (5)
	종교 없음	98	1.63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종교활동' 문항에 대해 종교가 있는 집단 3.10, 종교가 없는 집단 1.63의 응답 평균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활동 제한 또는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인해 응답 평균이 [보통이다] 수준으로 나왔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10. 기독교 · 천주교-불교 · 원불교 집단간 분석

<표-59> 평균분석-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기독교·천주교	104	3.38	.000	131 (2)
	불교·원불교	27	2.07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종교활동’ 문항에 대해 기독교·천주교 집단 3.38, 불교·원불교 집단 2.07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종교 분위기의 특성 상 경쾌한 찬송가와 사교 모임이 활발한 기독교·천주교 집단이 스트레스 해소에 종교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11.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집단간 분석

<표-60> 평균분석-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아동청소년	21	2.48	.004	242(1)
	청년	47	3.62		
	중장년	76	3.32		
	노인	98	3.04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아동청소년	20	2.00	.000	240(3)
	청년	47	3.26		
	중장년	76	2.64		
	노인	97	2.28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아동청소년	21	3.38	.000	238(5)
	청년	46	3.33		
	중장년	75	3.33		
	노인	96	2.14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아동청소년	21	2.62	.000	243(0)
	청년	47	3.13		
	중장년	76	2.96		
	노인	99	2.19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아동청소년	21	1.86	.045	243(0)
	청년	47	2.51		
	중장년	76	2.46		
	노인	99	2.07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아동청소년	21	2.33	.017	240(3)
	청년	46	3.37		
	중장년	75	3.11		
	노인	98	2.88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아동청소년	21	2.33	.003	241(2)
	청년	46	3.04		
	중장년	76	2.70		
	노인	98	2.22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아동청소년	21	1.62	.038	235(8)
	청년	45	2.16		
	중장년	74	1.88		
	노인	95	1.60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아동청소년	21	2.29	.000	242(1)
	청년	46	3.57		
	중장년	76	2.68		
	노인	99	2.20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의 전체 평균값은 2.62이며 아동청소년 2.29, 청년 3.57, 중장년 2.68, 노인 2.20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고용, 취업에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은 연령대로,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61> 평균분석-아동/청년/중장년/노인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취미 및 여가활동	아동청소년	21	3.81	.015	238(5)
	청년	46	3.17		
	중장년	75	2.91		
	노인	96	2.85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아동청소년	21	3.71	.000	234(9)
	청년	47	3.38		
	중장년	74	3.38		
	노인	92	2.57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아동청소년	21	2.14	.012	234(9)
	청년	46	1.93		
	중장년	74	2.61		
	노인	93	2.72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아동청소년	21	2.00	.012	234(9)
	청년	46	2.41		
	중장년	74	2.18		
	노인	93	1.80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취미 및 여가활동’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2이며 아동청소년 3.81, 청년 3.17, 중장년 2.91, 노인 2.85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 연령층에 비해 타 연령층의 응답 평균값이 낮아, 청년, 중장년, 노인 대상 취미 및 여가활동을 개발하고 개발된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연계가 필요하겠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이며 아동 청소년 3.71, 청년 3.38, 중장년 3.38, 노인 2.57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노인 연령층의 경우 자녀들 출가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낼 동거가족 감소로 인해 타 연령층에 비해 응답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62> 평균분석-아동/청년/중장년/노인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21	2.14	.002	243 (0)
	청년	47	2.45		
	중장년	76	2.75		
	노인	99	2.37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21	3.43	.004	243 (0)
	청년	47	3.28		
	중장년	76	3.07		
	노인	99	2.60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21	2.71	.000	242 (1)
	청년	47	3.62		
	중장년	76	2.84		
	노인	98	1.71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	21	3.29	.000	242 (1)
	청년	47	3.60		
	중장년	76	3.87		
	노인	98	2.95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아동청소년	21	2.29	.026	243 (0)
	청년	47	2.17		
	중장년	76	2.37		
	노인	99	2.74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21	2.33	.041	241 (2)
	청년	47	2.96		
	중장년	76	2.32		
	노인	97	2.45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21	3.10	.000	241 (2)
	청년	47	3.09		
	중장년	76	3.32		
	노인	97	2.07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21	3.29	.000	242 (1)
	청년	47	2.85		
	중장년	76	3.32		
	노인	98	2.10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8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간편식 섭취가 늘어났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95이며 아동청소년 3.43, 청년 3.28, 중장년 3.07, 노인 2.60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대와 간편식 섭취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반비례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52이며 아동청소년 2.71, 청년 3.28, 중장년 2.84, 노인 1.71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타 연령층에 비해 청년 연령층이 배달음식 섭취에 대한 응답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발달된 배달 어플리케이션 활용도가 높은 연령층이 배달음식을 통해 편의성을 추구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노인 연령층의 경우 응답 평균값이 가장 낮으며 타 연령층과 응답 평균값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층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진행할 시 기본적인 교육에 더하여 편의 기능 교육이 필요하겠다.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9이며 아동청소년 3.29, 청년 3.60, 중장년 3.87, 노인 2.95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타 연령층에 비해 외식 감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양 가족 수, 지출 절약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75이며 아동 청소년 3.10, 청년 3.09, 중장년 3.32, 노인 2.07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노인 연령층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자녀 출가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방문이 어려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12. 정기적 근로활동-비정기적 근로활동-무직 집단간 분석

<표-63> 평균분석-정기적 근로활동/비정기적 근로활동/무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정기적 근로활동	110	3.28	.004	222(1)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3.72		
	무직	76	2.89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정기적 근로활동	110	2.61	.000	220(3)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3.56		
	무직	74	2.09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정기적 근로활동	108	3.32	.000	219(4)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3.22		
	무직	75	2.07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정기적 근로활동	111	2.83	.000	223(0)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3.19		
	무직	76	2.14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정기적 근로활동	111	2.31	.004	223(0)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2.42		
	무직	76	2.08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정기적 근로활동	111	2.91	.000	222(1)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2.53		
	무직	75	2.01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정기적 근로활동	111	2.98	.000	223(0)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2.86		
	무직	76	2.08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 중 7개의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2이며 정기적 근로활동 집단 3.28, 비정기적 근로활동 집단 3.7, 무직 집단 2.89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또한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59이며 정기적 근로활동 집단 2.6, 비정기적 근로활동 집단 3.56, 무직 집단 2.09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비정기적 근로활동 집단이 정기적 근로활동 집단에 비해 고용,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 고용침체에 따른 응답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64> 평균분석-정기적 근로활동/비정기적 근로활동/무직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정기적 근로활동	111	2.65	.000	223 (0)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2.53		
	무직	76	1.91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정기적 근로활동	111	2.96	.000	223 (0)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2.97		
	무직	76	1.79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정기적 근로활동	110	3.79	.000	222 (1)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3.50		
	무직	76	2.79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정기적 근로활동	110	3.12	.000	222 (1)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3.03		
	무직	76	2.20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정기적 근로활동	110	3.06	.000	222 (1)
	비정기적 근로활동	36	3.14		
	무직	76	2.16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0이며 정기적 근로활동 집단 3.79, 비정기적 근로활동 집단 3.50, 무직 집단 2.79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무직 집단이 근로활동 집단에 비해 낮은 응답 평균값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무직 집단에 학생, 주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응답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13. 1인 가구-2~5인 가구-4~5인 가구 집단간 분석

<표-65> 평균분석-1인 가구/2~3인 가구/4~5인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1인가구	54	1.98	.001	240 (3)
	2~3인가구	96	2.61		
	4~5인가구	90	2.86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1인가구	54	1.96	.000	239 (4)
	2~3인가구	95	2.74		
	4~5인가구	90	3.49		
나(가족)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인가구	55	2.05	.000	243 (0)
	2~3인가구	97	2.69		
	4~5인가구	91	3.00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1인가구	54	2.17	.006	242 (1)
	2~3인가구	97	2.43		
	4~5인가구	91	2.86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1인가구	55	2.02	.000	243 (0)
	2~3인가구	97	2.59		
	4~5인가구	91	3.00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나(가족)는 업무(학업)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88이며 1인가구 1.96, 2~3인가구 2.74, 4~5인가구 3.49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나 가구원수 증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가 비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양가구 수가 많을수록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66> 평균분석-1인 가구/2~3인 가구/4~5인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 (결측)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1인가구	50	2.24	.000	234 (9)
	2~3인가구	94	3.02		
	4~5인가구	90	3.59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1인가구	54	3.57	.030	236 (7)
	2~3인가구	92	3.02		
	4~5인가구	90	3.28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1인가구	55	2.91	.049	235 (8)
	2~3인가구	92	2.35		
	4~5인가구	88	2.38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1인가구	52	1.69	.025	235 (8)
	2~3인가구	94	2.11		
	4~5인가구	89	2.20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7이며 1인가구 2.24, 2~3인가구 3.02, 4~5인가구 3.59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동거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가정이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유추된다. 1인가구 집단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낮은 응답 평균값이 나타나 이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67> 평균분석-1인 가구/2~3인 가구/4~5인 가구 집단 별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1인가구	55	1.85	.000	243(0)
	2~3인가구	97	2.22		
	4~5인가구	91	2.76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1인가구	55	2.58	.037	243(0)
	2~3인가구	97	2.96		
	4~5인가구	91	3.16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1인가구	54	1.46	.000	242(1)
	2~3인가구	97	2.61		
	4~5인가구	91	3.07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1인가구	55	2.87	.000	242(1)
	2~3인가구	97	3.24		
	4~5인가구	90	3.88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1인가구	54	1.74	.000	241(2)
	2~3인가구	97	2.79		
	4~5인가구	90	3.29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1인가구	55	1.82	.000	242(1)
	2~3인가구	97	2.75		
	4~5인가구	90	3.30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에서 집단 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52이며 1인가구 1.46, 2~3인가구 2.61, 4~5인가구 3.07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또한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9, 1인가구 2.87, 2~3인가구 3.24, 4~5인가구 3.88의 응답 평균값이 조사되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외식의 감소와 배달음식 섭취가 증가함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인 이상 집합금지 등에 따라 외식이 제한되고, 이를 대체하고자 배달 음식 섭취가 증가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14.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무교 집단간 분석

<표-68> 평균분석-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무교 집단 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구분	빈도	평균	유의확률	전체(결측)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불교	25	2.08	.000	232(5)
	기독교	79	3.54		
	천주교	25	2.84		
	원불교	2	2.00		
	무교	98	1.63		
	기타	3	3.00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종교활동'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48이며 불교 2.08, 기독교 3.54, 천주교 2.84, 원붉교 2.00, 무교 1.63, 기타 3.00의 응답 평균값이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를 종교활동을 통해 대처하는 집단으로 기독교 집단이 가장 높은 응답 평균값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경쾌한 찬송가와 사교 모임이 활발한 종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본문- V.

신뢰도 검증

V. 신뢰도 검증

설문지의 각 하위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검정은 등간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1~5번 문항, 19번 문항)

<표-69>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 측정 문항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880	12

-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Cronbach 알파 값은 0.880으로, 기준인 0.6을 넘어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표-70>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측정 문항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19	10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Cronbach 알파 값은 0.719로, 기준인 0.6을 넘어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표-71>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의 경험 정도 측정 문항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904	9

-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의 경험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Cronbach 알파 값은 0.904로, 기준인 0.6을 넘어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표-72>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측정 문항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32	9

-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Cronbach 알파 값은 0.732로, 기준인 0.6을 넘어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표-73>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 측정 문항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24	5

-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Cronbach 알파 값은 0.724로, 기준인 0.6을 넘어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표-74> 신뢰도 통계량-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과 관련된 문항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886	6

-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Cronbach 알파 값은 0.886으로, 기준인 0.6을 넘어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본문-Ⅵ

결론 및 제언

Ⅵ. 결론 및 제언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겪고 있는 일상생활 및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복지관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것과는 다르게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은 복지관 운영 및 지역주민을 돕는 후원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인식조사의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 대부분이 COVID-19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을 돌보고 일상생활 또한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VID-19로 인해 스트레스 정도, 심리•정서적 변화 등의 정신적 영역이나, 식생활, 운동량, 소득 및 지출 등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COVID-19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아주 큰 변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주민 스스로의 삶을 방역수칙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긴급서비스의 형태로 일상생활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변화가 없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조사에서 발견된 유의미한 분석값을 바탕으로 COVID-19 상황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재평가해보고, 향후 복지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단순히 주민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상황에서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관점과 방법으로 주민과 함께 해야하는 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본 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사업 기획 및 방법 개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지관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후원자(처)로서 바라보고 응대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COVID-19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조직팀에서는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었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인식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여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칙의 시행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은 심리정서적인 영역 뿐 아닌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지역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소상공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조직 관점의 활동들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COVID-19 기간 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비대면(언택트) 사업의 경험 적 기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키트체험활 동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ZOOM/MS TEAMS) 등을 통해 영업장소에서 다소 여유로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방화동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 방화동 지역사회내에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 또 한 장기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 다.

2. 주민(가구)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

본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기획되고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의 욕구 파악 보다는 개발되었거나 확보된 서비스 조건에 맞는 주민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또한 적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되기 보다는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찾아오는 주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욕구들은 연령대(생애주기), 가구 구성원 수, 정부보호 유무에 따라 심리•정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이상 ~ 50대 미만의 주민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중년에 대한 새로운 사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들은 새로운 공간과

시간들을 설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형태로, 평일 주간 시간이 아닌 야간 및 휴일 시간대를 활용한 서비스 계획이 시범적으로나마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간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기획 상의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중심의 기획이 아닌 주민들 모두가 함께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매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대면/비대면 방식의 복합적 사업 운영 필요

디지털 기기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주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트북, 태블릿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령대는 10대~30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화, 카톡 등 단순한 기기 활용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의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과 서비스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달되고 참여하는 방식의 다양성부터 고민하고, 주민의 참여가 가장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구체화하여 단위사업 별 매뉴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화 교육을 기획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화 기기를 상황에 맞게 확보하고 제공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동영상 강의 등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환경에서 태블릿 등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 대한 지원등의 새로운 욕구에 대해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인식조사는 COVID-19 상황을 살아가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던 조사였던 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고, 대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서비

스 및 프로그램 기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복지관의 정체성, 즉 존재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본문

부 록

※부록

1. 문항 간 상관관계

<표-75>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스트레스

문항		나(가족)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질병, 영양 및 운동부족 등)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우울, 불안 등)
나(가족)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질병, 영양 및 운동부족 등)	Pearson 상관	1	.618**
	유의확률 (양측)		.000
	빈도	243	243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우울, 불안 등)	Pearson 상관	.618**	1
	유의확률 (양측)	.000	
	빈도	243	243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Pearson 상관	.427**	.503**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3	243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Pearson 상관	.317**	.40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1	241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Pearson 상관	.297**	.386**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39	239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경조사,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등)	Pearson 상관	.484**	.49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3	243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Pearson 상관	.419**	.46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3	243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Pearson 상관	.428**	.399**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3	243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Pearson 상관	.296**	.35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0	240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Pearson 상관	.348**	.359**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1	241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Pearson 상관	.142*	.171**
	유의확률 (양측)	.029	.009
	빈도	235	235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Pearson 상관	.292**	.439**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2	242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경조사,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등)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427**	.317**	.297**	.484**	.419**
.000	.000	.000	.000	.000
243	241	239	243	243
.503**	.402**	.386**	.495**	.461**
.000	.000	.000	.000	.000
243	241	239	243	243
1	.620**	.344**	.458**	.393**
	.000	.000	.000	.000
243	241	239	243	243
.620**	1	.469**	.335**	.425**
.000		.000	.000	.000
241	241	238	241	241
.344**	.469**	1	.414**	.433**
.000	.000		.000	.000
239	238	239	239	239
.458**	.335**	.414**	1	.312**
.000	.000	.000		.000
243	241	239	243	243
.393**	.425**	.433**	.312**	1
.000	.000	.000	.000	
243	241	239	243	244
.274**	.255**	.345**	.310**	.527**
.000	.000	.000	.000	.000
243	241	239	243	244
.241**	.234**	.338**	.389**	.366**
.000	.000	.000	.000	.000
240	238	237	240	241
.338**	.255**	.400**	.380**	.406**
.000	.000	.000	.000	.000
241	239	238	241	242
.112	.287**	.335**	.154*	.277**
.087	.000	.000	.018	.000
235	234	233	235	236
.466**	.413**	.499**	.452**	.450**
.000	.000	.000	.000	.000
242	240	239	242	243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428**	.296**	.348**	.142*	.292**
.000	.000	.000	.029	.000
243	240	241	235	242
.399**	.355**	.359**	.171**	.439**
.000	.000	.000	.009	.000
243	240	241	235	242
.274**	.241**	.338**	.112	.466**
.000	.000	.000	.087	.000
243	240	241	235	242
.255**	.234**	.255**	.287**	.413**
.000	.000	.000	.000	.000
241	238	239	234	240
.345**	.338**	.400**	.335**	.499**
.000	.000	.000	.000	.000
239	237	238	233	239
.310**	.389**	.380**	.154*	.452**
.000	.000	.000	.018	.000
243	240	241	235	242
.527**	.366**	.406**	.277**	.450**
.000	.000	.000	.000	.000
244	241	242	236	243
1	.426**	.462**	.258**	.378**
	.000	.000	.000	.000
244	241	242	236	243
.426**	1	.453**	.315**	.498**
.000		.000	.000	.000
241	241	240	234	241
.462**	.453**	1	.332**	.559**
.000	.000		.000	.000
242	240	242	235	242
.258**	.315**	.332**	1	.317**
.000	.000	.000		.000
236	234	235	236	236
.378**	.498**	.559**	.317**	1
.000	.000	.000	.000	
243	241	242	236	243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개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관계는 '나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과 '나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 간 관계였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관계는 '나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문항과 '나는 코로나 확진 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간 관계였다.

<표-76> 문항 간 상관관계 -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

문항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식사, 수면, 휴식 등)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취미 및 여가활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식사, 수면, 휴식 등)	Pearson 상관	1	.423**	.350**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38	238	238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Pearson 상관	.423**	1	.51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38	240	239
취미 및 여가활동	Pearson 상관	.350**	.518**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38	239	239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Pearson 상관	.250**	.282**	.33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34	234	234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Pearson 상관	.291**	.272**	.284**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35	236	236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Pearson 상관	.110	.096	.018
	유의확률 (양측)	.093	.144	.785
	빈도	233	235	234
코로나 관련정보 찾아보기	Pearson 상관	.023	.149*	.017
	유의확률 (양측)	.730	.022	.801
	빈도	235	235	235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Pearson 상관	.294**	.154*	.111
	유의확률 (양측)	.000	.018	.087
	빈도	237	237	237
사회적 거리두기(외출자제 등)	Pearson 상관	.118	.063	-.051
	유의확률 (양측)	.072	.337	.439
	빈도	232	232	232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Pearson 상관	.182**	.137*	.252**
	유의확률 (양측)	.005	.035	.000
	빈도	235	235	235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코로나 관련정보 찾아보기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사회적 거리두기(외출 자제 등)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250**	.291**	.110	.023	.294**	.118	.182**
.000	.000	.093	.730	.000	.072	.005
234	235	233	235	237	232	235
.282**	.272**	.096	.149*	.154*	.063	.137*
.000	.000	.144	.022	.018	.337	.035
234	236	235	235	237	232	235
.335**	.284**	.018	.017	.111	-.051	.252**
.000	.000	.785	.801	.087	.439	.000
234	236	234	235	237	232	235
1	.342**	.093	.200**	.266**	.098	.258**
	.000	.158	.002	.000	.138	.000
235	233	230	232	234	229	232
.342**	1	.183**	.336**	.353**	.272**	.161*
.000		.005	.000	.000	.000	.014
233	237	232	233	235	230	233
.093	.183**	1	.267**	.056	.099	.178**
.158	.005		.000	.399	.137	.006
230	232	235	231	233	229	232
.200**	.336**	.267**	1	.407**	.285**	.095
.002	.000	.000		.000	.000	.146
232	233	231	235	235	231	233
.266**	.353**	.056	.407**	1	.648**	.091
.000	.000	.399	.000		.000	.164
234	235	233	235	237	232	235
.098	.272**	.099	.285**	.648**	1	.129
.138	.000	.137	.000	.000		.050
229	230	229	231	232	233	231
.258**	.161*	.178**	.095	.091	.129	1
.000	.014	.006	.146	.164	.050	
232	233	232	233	235	231	235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을 측정하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6개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관계는 '방역수칙 지키기' 문항과 '사회적 거리두기' 문항 간 관계였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관계는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문항과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문항 간 관계였다.

<표-77>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신체·심리적 변화 정도

문항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Pearson 상관	1	.714**	.51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1	241	24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Pearson 상관	.714**	1	.59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1	241	241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Pearson 상관	.517**	.592**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1	241	242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Pearson 상관	.550**	.625**	.61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41	241	242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Pearson 상관	.533**	.482**	.500**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40	240	241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Pearson 상관	.490**	.550**	.403**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40	240	240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Pearson 상관	.447**	.484**	.49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40	240	240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Pearson 상관	.376**	.426**	.409**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41	241	241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Pearson 상관	.356**	.425**	.34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41	241	241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550**	.533**	.490**	.447**	.376**	.356**
.000	.000	.000	.000	.000	.000
241	240	240	240	241	241
.625**	.482**	.550**	.484**	.426**	.425**
.000	.000	.000	.000	.000	.000
241	240	240	240	241	241
.615**	.500**	.403**	.497**	.409**	.345**
.000	.000	.000	.000	.000	.000
242	241	240	240	241	241
1	.581**	.494**	.508**	.435**	.386**
	.000	.000	.000	.000	.000
242	241	240	240	241	241
.581**	1	.431**	.586**	.489**	.364**
.000		.000	.000	.000	.000
241	241	239	239	240	240
.494**	.431**	1	.589**	.587**	.639**
.000	.000		.000	.000	.000
240	239	240	239	240	240
.508**	.586**	.589**	1	.699**	.604**
.000	.000	.000		.000	.000
240	239	239	240	240	240
.435**	.489**	.587**	.699**	1	.665**
.000	.000	.000	.000		.000
241	240	240	240	241	241
.386**	.364**	.639**	.604**	.665**	1
.000	.000	.000	.000	.000	
241	240	240	240	241	24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의 경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관계는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문항과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문항 간 관계였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관계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문항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문항 간 관계였다.

<표-78>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문항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Pearson 상관	1	.192**	.350**
	유의확률 (양측)		.003	.000
	빈도	244	244	243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Pearson 상관	.192**	1	.523**
	유의확률 (양측)	.003		.000
	빈도	244	244	243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Pearson 상관	.350**	.523**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빈도	243	243	243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Pearson 상관	.263**	.210**	.343**
	유의확률 (양측)	.000	.001	.000
	빈도	243	243	242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Pearson 상관	.256**	.195**	.099
	유의확률 (양측)	.000	.002	.126
	빈도	241	241	240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Pearson 상관	.233**	.145*	-.030
	유의확률 (양측)	.000	.023	.644
	빈도	244	244	243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Pearson 상관	.143*	.277**	.236**
	유의확률 (양측)	.026	.000	.000
	빈도	242	242	241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Pearson 상관	.219**	.167**	.345**
	유의확률 (양측)	.001	.009	.000
	빈도	242	242	242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Pearson 상관	.312**	.289**	.38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빈도	243	243	242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263**	.256**	.233**	.143*	.219**	.312**
.000	.000	.000	.026	.001	.000
243	241	244	242	242	243
.210**	.195**	.145*	.277**	.167**	.289**
.001	.002	.023	.000	.009	.000
243	241	244	242	242	243
.343**	.099	-.030	.236**	.345**	.387**
.000	.126	.644	.000	.000	.000
242	240	243	241	242	242
1	.258**	.101	.212**	.211**	.238**
	.000	.115	.001	.001	.000
243	240	243	242	242	243
.258**	1	.648**	.446**	-.020	.100
.000		.000	.000	.756	.123
240	241	241	239	239	240
.101	.648**	1	.383**	-.064	.075
.115	.000		.000	.320	.241
243	241	244	242	242	243
.212**	.446**	.383**	1	-.062	.109
.001	.000	.000		.337	.092
242	239	242	242	241	242
.211**	-.020	-.064	-.062	1	.598**
.001	.756	.320	.337		.000
242	239	242	241	242	242
.238**	.100	.075	.109	.598**	1
.000	.123	.241	.092	.000	
243	240	243	242	242	243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9개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관계는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문항과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문항 간 관계였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관계는 '건강보조식품 섭취가 늘어났다.' 문항과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문항 간 관계였다.

<표-79>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

문항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체중이 감소하였다.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Pearson 상관	1	.490**	.815**	.080	.27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215	.000
	빈도	244	244	243	242	244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Pearson 상관	.490**	1	.580**	.089	.240**
	유의확률 (양측)	.000		.000	.170	.000
	빈도	244	244	243	242	244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Pearson 상관	.815**	.580**	1	.052	.35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419	.000
	빈도	243	243	243	241	243
체중이 감소하였다.	Pearson 상관	.080	.089	.052	1	.438**
	유의확률 (양측)	.215	.170	.419		.000
	빈도	242	242	241	242	242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Pearson 상관	.271**	.240**	.351**	.438**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빈도	244	244	243	242	244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3개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관계는 '외부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문항과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문항 간 관계였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관계는 '내부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문항과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문항 간 관계였다.

<표-80> 문항 간 상관관계 -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

문항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체온측정 등).	복지관은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항균필름, 정기소독 등)	복지관은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복지관은 위생(방역) 용품을 적절히 구비(지급)하고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Pearson 상관	1	.377**	.423**	.493**	.515**	.35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빈도	187	186	185	185	185	185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체온측정 등).	Pearson 상관	.377**	1	.829**	.577**	.611**	.703**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빈도	186	186	185	185	185	185
복지관은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항균필름, 정기소독 등)	Pearson 상관	.423**	.829**	1	.612**	.628**	.70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빈도	185	185	185	185	185	185
복지관은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Pearson 상관	.493**	.577**	.612**	1	.718**	.66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빈도	185	185	185	185	185	185
복지관은 위생(방역)용품을 적절히 구비(지급)하고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Pearson 상관	.515**	.611**	.628**	.718**	1	.71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빈도	185	185	185	185	185	185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Pearson 상관	.355**	.703**	.701**	.662**	.717**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빈도	185	185	185	185	185	185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을 측정하는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관계는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문항과 '복지관은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문항 간 관계였다.
-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관계는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문항과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문항 간 관계였다..

코로나(COVID)-19 이후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욕구조사(주민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10월 개관 이후 "존엄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의 목소리와 공명하는 실천',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실천', '편견없이 협력하는 실천'의 사명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며,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다가오는 것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욕구조사는 COVID-19로 인해 방화3동 주민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복지관의 향후 역할과 실천방식을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 33조 2항에 의거하여 통계분석용으로만 활용되며, 그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자 분들의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마음 다시 한 번 전하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COVID-19 상황이 안정화되어 소중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장 드림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통계법 제33조 2항-

ID			

조사원	

Ⅰ.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신체·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가족)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질병, 영양 및 운동부족 등)					
1-2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우울, 불안 등)					
1-3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1-4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1-5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1-6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경조사,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등)					
1-7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8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9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1-10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1-11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12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2.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식사, 수면, 휴식 등)					
2-2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2-3	취미 및 여가활동					
2-4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2-5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2-6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2-7	코로나 관련정보 찾아보기					
2-8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2-9	사회적 거리두기(외출자제 등)					
2-10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3.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의 경험정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변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3-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3-4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3-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3-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3-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3-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3-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4.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식생활 변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변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4-2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4-3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4-4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4-5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4-6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4-7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4-8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4-9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5.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변화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신체활동 관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5-2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5-3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5-4	체중이 감소하였다.					
5-5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Ⅱ.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획득 영역>

6. 귀하가 소지한 디지털 기기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핸드폰 ② 컴퓨터(노트북) ③ 태블릿 ④ 기타( )

7. 귀하가 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통화 ② 영상시청 ③ 뉴스검색 ④ 문자, 카톡 등 채팅
⑤ 메일전송 ⑥ 게임 ⑦ 사진 ⑧ 온라인 뱅킹
⑨ 쇼핑 ⑩ 메모, 기록 ⑪ 기타( )

8. 귀하는 지난 1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셨습니까? (최대 3가지 선택가능)

① TV 및 라디오 ② 일간지 및 지역신문 ③ 인터넷 뉴스(다음, 네이버 등)
④ 인쇄,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 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⑥ 유튜브 ⑦ 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 지인 등 ⑧공공기관, 복지관 등
⑨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⑩ 기타( )

<경제영역>

9. 코로나-19 이후 지출 금액이 가장 증가한 항목 3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식비 ②주거생활비(월세, 공과금 등) ③교육비(전자장비 구입 등) ④미용의류비
⑤여가활동비 ⑥의료비 ⑦교통비 ⑧방역용품비 ⑨상가임대료(월세)

10. 코로나-19 이후 지출 금액이 가장 감소한 항목 3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식비 ②주거생활비(월세, 공과금 등) ③교육비(전자장비 구입 등) ④미용의류비
⑤여가활동비 ⑥의료비 ⑦교통비 ⑧방역용품비 ⑨상가임대료(월세)

<고용영역>

11. 귀하의 가정 내 가장(주소득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개인사업) ② 정규직 ③ 계약직(1년이상) ④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 ⑤ 무직
⑥ 기타( )

12. 코로나-19 이후 가장(주소득자)의 고용(소득)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무급(휴업)휴직 ③ 유급휴직 ④ 실직(폐업) ⑤ 기타( )

13. 코로나-19 이후 가장(주소득자)의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휴업일수증가 ③ 재택근무증가 ④ 교대근무증가
⑤ 근무(영업)시간의 증가 ⑥ 근무(영업)시간의 감소 ⑦ 기타( )

14. 코로나-19 이후 소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많이 감소 ② 조금 감소 ③ 변동 없음 ④ 조금 증가 ⑤ 매우 많이 증가

<사회적관계 영역>

15.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줄어들었다 ③ 늘어났다

16.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갈등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줄어들었다 ③ 늘어났다

17. 코로나-19 이후 이웃, 친구들과 직접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줄어들었다 ③ 늘어났다

18. 코로나-19 이후 이웃,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줄어들었다 ③ 늘어났다

Ⅲ.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복지관 이용(방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1	복지관은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19-2	복지관은 체온측정과 관련한 장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열감지카메라, 체온측정 등).					
19-3	복지관은 방역 및 소독 활동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항균필름, 정기소독 등)					
19-4	복지관은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19-5	복지관은 위생(방역)용품을 적절히 구비(지급)하고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19-6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Ⅳ.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치하는 것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　② 여

2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2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　② 회사원(임금 근로자)　③ 프리랜서　④ 공무원　⑤ 일용직
⑥ 학생　⑦ 아르바이트　⑧주부　⑨ 무직　⑩ 기타 (　　)

23. 귀하가 정부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보호제도는 무엇입니까?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조건부수급자　③ 차상위 계층　④ 잘 모르겠음　⑤ 해당 없음

24. 귀하의 가구원 수는 몇 명 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25. 현재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배우자　② 어머니　③ 아버지　④ 조부모님　⑤ 자녀　⑥ 형제·자매
⑦ 손자녀　⑧ 없음　⑨ 기타(친척, 친구 등)

2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무교　⑥ 기타

27. 귀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27-1번으로)　② 없음

27-1. 귀하는 어떤 사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① 유사 증상(발열 등)　② 해외 입국(출국)　③ 확진자 접촉
④ 자발적 선택(걱정, 불안, 무료검사 등 개인적인 선택)　⑤ 검사 대상자(정부의 통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COVID)-19 이후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욕구조사(소상공인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10월 개관 이후 "존엄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의 목소리와 공명하는 실천',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실천', '편견없이 협력하는 실천'의 사명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며,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다가오는 것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욕구조사는 COVID-19로 인해 방화3동 주민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복지관의 향후 역할과 실천 방식을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 33조 2항에 의거하여 통계분석용으로만 활용되며, 그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자 분들의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마음 다시 한 번 전하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COVID-19 상황이 안정화되어 소중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장 드림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통계법 제33조 2항-

ID			

조사원	

Ⅰ.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신체·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경험하였던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가족)는 신체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질병, 영양 및 운동부족 등)					
1-2	나(가족)는 정신적 건강 훼손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우울, 불안 등)					
1-3	나(가족)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수입 감소, 부채 등)					
1-4	나(가족)는 고용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실직, 휴직 등)					
1-5	나(가족)는 업무(학업)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1-6	나(가족)는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경조사,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등)					
1-7	나는 가족 간 갈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8	나(가족)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9	나(가족)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부정확한 정보, 가짜뉴스 등)					
1-10	나(가족)는 개인 정보노출 우려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방명록 작성, QR코드 출입 등)					
1-11	나(가족)는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1-12	나(가족)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 등)					

2.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식사, 수면, 휴식 등)					
2-2	가벼운 운동이나 신체 활동					
2-3	취미 및 여가활동					
2-4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2-5	비대면으로 대인관계 하기(전화, SNS 등)					
2-6	종교활동(기도, 종교영상시청 등)					
2-7	코로나 관련정보 찾아보기					
2-8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지키기					
2-9	사회적 거리두기(외출자제 등)					
2-10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3.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의 경험정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변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고 느낀다.					
3-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3-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3-4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3-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3-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3-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3-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3-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4.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식생활 변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변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건강보조식품(보약, 영양제 등) 섭취가 늘어났다.					
4-2	간편식(즉석식품, 패스트푸드 등) 섭취가 늘어났다.					
4-3	배달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4-4	외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4-5	식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4-6	식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4-7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4-8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4-9	식사 준비 및 조리시간이 늘어났다.					

5.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신체활동 및 상태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변화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신체활동 관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외부(공원, 산 등)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5-2	내부(집안)에서 하는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5-3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5-4	체중이 감소하였다.					
5-5	체력이 감소했다고 느낀다.					

Ⅱ.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획득 영역>

6. 귀하가 소지한 디지털 기기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핸드폰 ② 컴퓨터(노트북) ③ 태블릿 ④ 기타( )

7. 귀하가 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통화 ② 영상시청 ③ 뉴스검색 ④ 문자, 카톡 등 채팅
⑤ 메일전송 ⑥ 게임 ⑦ 사진 ⑧ 온라인 뱅킹
⑨ 쇼핑 ⑩ 메모, 기록 ⑪ 기타( )

8. 귀하는 지난 1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셨습니까? (최대 3가지 선택가능)
① TV 및 라디오 ② 일간지 및 지역신문 ③ 인터넷 뉴스(다음, 네이버 등)
④ 인쇄,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 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⑥ 유튜브 ⑦ 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 지인 등 ⑧공공기관, 복지관 등
⑨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⑩ 기타( )

<경제영역>

9. 코로나-19 이후 지출 금액이 가장 증가한 항목 3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식비 ②주거생활비(월세, 공과금 등) ③교육비(전자장비 구입 등) ④미용의류비
⑤여가활동비 ⑥의료비 ⑦교통비 ⑧방역용품비 ⑨상가임대료(월세)

10. 코로나-19 이후 지출 금액이 가장 감소한 항목 3가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식비 ②주거생활비(월세, 공과금 등) ③교육비(전자장비 구입 등) ④미용의류비
⑤여가활동비 ⑥의료비 ⑦교통비 ⑧방역용품비 ⑨상가임대료(월세)

<고용영역>

11. 귀하의 가정 내 가장(주소득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개인사업) ② 정규직 ③ 계약직(1년이상) ④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 ⑤ 무직
⑥ 기타( )

12. 코로나-19 이후 가장(주소득자)의 고용(소득)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무급(휴업)휴직 ③ 유급휴직 ④ 실직(폐업) ⑤ 기타( )

13. 코로나-19 이후 가장(주소득자)의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휴업일수증가 ③ 재택근무증가 ④ 교대근무증가
⑤ 근무(영업)시간의 증가 ⑥ 근무(영업)시간의 감소 ⑦ 기타( )

14. 코로나-19 이후 소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많이 감소 ② 조금 감소 ③ 변동 없음 ④ 조금 증가 ⑤ 매우 많이 증가

<사회적관계 영역>

15.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줄어들었다 ③ 늘어났다

16.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갈등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줄어들었다 ③ 늘어났다

17. 코로나-19 이후 이웃, 친구들과 직접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줄어들었다 ③ 늘어났다

18. 코로나-19 이후 이웃,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동없다 ② 줄어들었다 ③ 늘어났다

Ⅲ.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치하는 것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 ② 여

20.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2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 ② 회사원(임금 근로자) ③ 프리랜서 ④ 공무원 ⑤ 일용직
⑥ 학생 ⑦ 아르바이트 ⑧주부 ⑨ 무직 ⑩ 기타 ( )

22. 귀하가 정부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보호제도는 무엇입니까?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조건부수급자 ③ 차상위 계층 ④ 잘 모르겠음 ⑤ 해당 없음

23. 귀하의 가구원 수는 몇 명 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24. 현재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배우자 ② 어머니 ③ 아버지 ④ 조부모님 ⑤ 자녀 ⑥ 형제·자매
⑦ 손자녀 ⑧ 없음 ⑨ 기타(친척, 친구 등)

2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무교 ⑥ 기타

26. 귀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27-1번으로) ② 없음

26-1. 귀하는 어떤 사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① 유사 증상(발열 등) ② 해외 입국(출국) ③ 확진자 접촉

④ 자발적 선택(걱정, 불안, 무료검사 등 개인적인 선택) ⑤ 검사 대상자(정부의 통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 행 일 2021년 10월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길 25,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전　　화 02-2666-6181

팩　　스 02-2666-6184

홈페이지 http://banghwa6.or.kr

디 자 인 ㈜타라그래픽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의 2021 코로나(COVID)-19 이후 복지관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의 내용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